

창원 의회 소식

제16호



창원시의회
<http://council.changwon.go.kr>

소통과 화합으로
꿈과 희망을 주는
..... 창원시 의회





2015. 07.

Contents

02 인사말

04 주요안건 처리현황

- 제47회 임시회 (2015. 4. 14. ~ 4. 21.)
- 제48회 임시회 (2015. 5. 11. ~ 5. 13.)

08 시정에 관한 질문

- 제47회 임시회 (손태화 의원 등 5명)

15 5분 자유발언

- 제47회 임시회 (이상인 의원 등 10명)
- 제48회 임시회 (박춘덕 의원 등 7명)

19 건의안 및 결의안

- 독도관련 일본중학교 교과서
검정·승인 취소 촉구 결의안

20 위원회 활동

23 사진으로 보는 의정활동

32 언론 보도자료

48 의원 칼럼



MESSAGE



존경하는 108만 시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안상수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신록이 푸르름을 더해가는 봄을 맞아, 제47회 임시회를 개최하는 이 자리에서 여러분의 건강하고 활기찬 모습을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는 4월 16일은 세월호 참사 1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다시 한 번 더 세월호 참사로 희생된 분들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에게 심심한 애도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다시는 이러한 참사가 발생하지 않도록 우리 모두가 안전사고 예방에 철저를 기해야 하겠습니다.

지난 4월 1일부터 열흘 간 열린 진해군항제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었고, 9일부터는 창원월드컵 국제사격대회가 우리시에서 개최되고 있습니다.

행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고생하시는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지역 민생현장에서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의원 여러분께도 감사드리며, 새봄과 함께 창원시의회의 힘찬 출발을 다짐해 봅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우리시는 관광산업 육성을 통해 새로운 도약을 꿈꾸고 있으며, 매년 많은 행사와 축제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이미 전국적으로 알려진 진해군항제와 국화축제 뿐만 아니라 천주산 진달래축제, 미더덕 축제, K-POP페스티벌 등의 행사에 투입되는 재정과 인력 또한 타 지방자치단체에 비해 그 규모가 큰 편입니다.

앞으로 창원시는 이러한 축제와 행사를 활용한 관광연계 프로그램 개발을 통해 관광도시로서의 창원을 적극 알림과 동시에 지역주민의 소득 증대에도 기여할 수 있는 관광인프라를 구축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올해 초 정부는 수도권 규제완화에 대하여 종합적인 국토 정책차원에서 의견을 수렴하고 합리적인 방안을 찾겠다고 언급한 바 있습니다.

이후 비수도권 지역에서는 정부의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에 대한 반대 목소리를 꾸준히 내고 있으며, 창원시의회에서도 지난 제46회 임시회에서 수도권 규제완화 중단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하여 청와대와 국회, 중앙정부 등에 제출하였습니다.

정부에서 수도권 규제완화정책을 추진하려는 것은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지방경제발전을 위해 노력해온 비수도권 지방자치단체의 노력에 찬물을 끼얹고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격차를 더욱 심화시키는 것입니다.

시민여러분께서도 앞으로 이러한 수도권 규제완화정책에 대해 관심을 가져주시고, 창원시의회의 수도권 규제완화 중단 노력에 함께 해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과 공무원 여러분!

오늘부터 8일간 열리게 되는 이번 임시회는 시정질문과 13건의 안건을 다루게 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시정질문을 통해 간과하기 쉬운 행정의 사각지대에 대해 지적함으로써 시민의 궁금증을 해소하고 바람직한 시정발전 방향을 제시해 주시기 바라며, 안건 심사에 있어서도 성실하고 진지한 자세로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집행기관에서도 진솔하고 성실한 답변을 통해 시정발전의 비전을 제시해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아무쪼록 이번 임시회가 시민에게 희망과 신뢰를 심어주는 소중한 기회가 되기를 바라며, 시민여러분과 이 자리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의 건승을 기원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5년 4월 14일

창원시의회 의장 유 원 석

제47회 창원시의회 임시회

(2015. 4. 14. ~ 4. 21.) ... 8일간

※ 보다 상세한 내용은 창원시의회 홈페이지(<http://council.changwon.go.kr>) 회의록을 검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 발 의 자 : 손태화 의원등 10명
- 처리결과 : 원안가결
- 제안이유
시장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기 위하여 시장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임.

창원시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제 출 자 : 창원시장
- 처리결과 : 원안가결
- 제안이유
하이브리드 자동차 등록자에 대한 지역개발채권 매입면제 기한을 2015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여 정부의 친환경자동차 보급 촉진에 기여하려는 것임.

창원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제 출 자 : 창원시장
- 처리결과 : 원안가결
- 제안이유
보건복지부 인구 50만 이상 도시에 대한 공중 보건건의 미배치 계획에 따라 의료공백 최소화를 위한 의사 확충과 재난 현장대응 능력 강화를 위한 소방인력을 증원 조정하려는 것임.



2015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

- 제 출 자 : 창원시장
- 처리결과 : 원안가결
- 제안이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0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창원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제12조에 의거 2015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을 의결 받고자 함.

창원시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안

- 제 출 자 : 창원시장
- 처리결과 : 원안가결
- 제안이유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제16조의2의 규정에 따라 금연지도원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금연지도원 제도 운영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함.



창원시 한부모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안

- 발 의 자 : 이옥선 의원등 5명
- 처리결과 : 수정가결
- 제안이유
부모의 사망, 이혼, 별거 등으로 한부모가족은 증가하고 있지만 지원제도의 부족, 사회적 편견으로 인하여 한부모가족의 경제적, 정서적 고통은 가중되고 있는 현실에서 한부모가족의 생활안정과 복지 지원 등을 통해 한부모가족을 둔 가정이 효과적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함.

창원시 창원국가산업단지 내 지식산업센터 건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

- 제 출 자 : 창원시장
- 처리결과 : 수정가결
- 제안이유
창원국가산업단지의 특수성에 맞는 구조 고도화와 산업입지 여건 개선을 위하여 창원국가산업단지 내 무분별한 공동 지분등기를 통한 소규모 공장의 설립 및 분양을 제한하여 산업단지의 경쟁력 강화를 하려는 것임.

창원시세 기본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 제 출 자 : 창원시장
- 처리결과 : 원안가결
- 제안이유
「국세징수법」에 체납처분을 중지한 경우에는 1개월간 공고하도록 하고 있어 상위법령과 동일하게 1개월간 공고하도록 개정하여 주민의 알권리를 보장 하려는 것임.

창원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제 출 자 : 창원시장
- 처리결과 : 원안가결
- 제안이유
유형장, 극장 및 4층 이상 10층 이하의 건축물 등 화재의 위험이 높은 건축물의 경우에는 일반 건축물에 대한 세액의 100분의 200을 세액으로 하고, 대형마트, 복합상영관, 11층 이상 건축물 등 대형 화재의 위험이 높은 건축물에 대해서는 일반 건축물에 대한 세액의 100분의 300을 세액으로 하도록 「지방세법」이 개정·시행됨에 따라 관련 조례의 지역자원시설세 세율을 상위법령에 맞도록 개정하려는 것임.

창원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제 출 자 : 창원시장
- 처리결과 : 원안가결
- 제안이유
「지방세특례제한법」 및 「경상남도 도세 감면 조례」가 개정됨에 따라 감면 기한을 일부 연장하고 관광활성화를 위한 관광호텔업 등에 대한 경감 규정을 신설하는 등 현행 제도 운영상에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창원시 농가 소규모 식품가공사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발 의 자 : 김동수 의원
- 처리결과 : 수정가결
- 제안이유
「농업인등의 농외소득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및 「식품안전기본법」에 따라 창원시 농업인 등의 식품가공사업 등 농외소득 활동을 지원하여 농가 소득 향상 및 농업인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함.

창원시 해양공원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제 출 자 : 창원시장
- 처리결과 : 원안가결
- 제안이유
해양공원의 입장료를 폐지하여 공원의 근본목적에 부합하는 공공성 향상과 시민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해양공원 내에 어류생태학습관이 건립됨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창원시 하수도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제 출 자 : 창원시장
- 처리결과 : 원안가결
- 제안이유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관련 규정 및 시장 권한 위임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고, 구분 실익이 없는 하수도 사용자 산정기준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여 행정혼란 및 민원 해소로 하수행정 업무를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함임.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시기 및 기간결정(안)

- 제 의 자 : 의 장
- 처리결과 : 원안가결
- 제안이유
2015년도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실시하게 될 행정사무감사를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창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3조제2항에 따라 실시시기 및 기간에 대한 의결을 구하고자 하는 것임.

2014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회 선임의 건

- 제 의 자 : 의 장
- 처리결과 : 원안가결
- 제안이유
「지방자치법」 제134조제1항에 따라 2014회계연도 창원시 세입·세출 등 결산 검사를 위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83 조와 「창원시 결산검사위원회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결산검사위원을 선임하고자 함.



독도관련 일본 중학교 교과서 검정·승인 취소 촉구 결의안

- 발 의 자 : 강호상 의원
- 처리결과 : 채택
- 제안이유
일본 문부과학성은 2015년 4월 6일 독도 영유권 주장을 한층 강화한 '2015년 중학교 교과서 검정 결과'를 발표하면서 지리·공민·역사 3과목 18종의 모든 교과서에 작년 발표한 교과서 제작 지침서 격인 '학습지도 요령 해설서'를 처음 적용하여 '독도는 일본 고유의 영토'이며 '대한민국이 불법점거하고 있다'는 내용과 4월 7일 공개된 2015년 외교청서에 독도에 대해 '역사적 사실에 비춰도 국제법상으로 명백한 일본 고유영토'로 왜곡 기술하고 있다. 이에 창원시의회는 108만 창원시민과 더불어 독도가 역사적, 지리적, 국제법적으로 명백한 대한민국의 영토임을 천명하면서, 일본은 왜곡된 교과서 검정 승인을 조속히 취소하고, 정부도 독도영유권에 도전하는 일본의 어떠한 행위도 단호하고 엄중하게 대처하여 줄 것을 결의 함.



제48회 창원시의회 임시회

(2015. 5. 11. ~ 5. 13.) ... 3일간

※ 보다 상세한 내용은 창원시의회 홈페이지(<http://council.changwon.go.kr>) 회의록을 검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48회 창원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 제 의 자 : 의 장
- 처리결과 : 원안가결
- 제안이유
조례안 및 기타 안건 등을 심사하기 위하여 「창원시의회 회의 규칙」 제12조에 따라 회기를 정하고자 하는 것임.

창원시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제 출 자 : 창원시장
- 처리결과 : 원안가결
- 제안이유
시장금리 하락 등의 영향으로 지역개발채권 유통금리가 액면금리에 근접하고 있으며, 유통금리가 액면금리 이하가 될 경우 동 채권 발행이 지방재정 손실을 유발할 수 있음.
지역개발기금은 상수도사업 등 공익사업 자금 조달·공급 등이 목적이나 최근 낮은 은행 대출이자율 등은 동 기금의 공익사업 지원 기능을 약화시키고 있어 동 기금 융자이자율 인하도 필요한 상황임.
지역개발채권 액면금리를 인하하여 유통금리의 과도한 하락에 따른 지방재정손실을 방지하고, 채권 액면금리 인하를 통해 지역개발기금 융자이자율 인하를 도모하여 지역개발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함.

제47회 창원시 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손태화 의원
(도시건설위원회)

창원시 읍·면·동 통폐합과 관련하여

질문 통합의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행정의 효율과 균형발전이 대전제였다. 통합창원시는 2010년 7월 1일 3개시가 통합되어 62개 읍면동으로 2014년도 6월말 기준 성산구 사파동 인구 5만 5960명, 마산합포구 가포동 인구 1,521명으로 무려 36배 이상의 편차가 나고 있다. 읍면동을 통폐합할 의지가 있는가?

답변 2011년도 3월달에 통폐합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9월에 실태조사 및 용역을 실시하여 시행할 예정이었지만, 2012년 4월11일 제19대 국회의원 선거, 12월 19일 대통령 선거, 그리고 통합이후 시청사문제 등으로 지역간의 갈등이 고조되어 보류를 하였음.

질문 우리시가 62개 읍면동을 우리시에 맞게 통폐합 한다면 몇 개의 읍면동이 적정하다고 보고 있는가?

답변 인구기준 15,000명에서 30,000명 정도가 적정수준이 될것으로 생각되며, 2011년도에 실시한 용역결과 17개 동을 감축하는 안과 14개등을 감축하는 방안, 또 11개동을 감축하는 방안등 3가지 방안을 도출한바가 있음.

질문 우리시의 과소 읍면동 통폐합은 올해가 적기라고 보는데 집행부의 생각은?

답변 지역간 갈등요인이 많이 해소가 되었지만 무엇보다도 지역주민의 의견이 중요하고 공감대가 형성되는 지역부터 마무리 하는 것이 좋을 것 임.

질문 우리시 인구가 통합전보다 줄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지, 창원시를 떠난 인구가 1만 3천여명이며 떠난것에 대해서 내용을 파악하는가?

답변 일시적인 현상으로 창원시가 광역시로 승격이 되면 도시경쟁력도 커지고 도시개발도 가속화 되어 인구가 크게 증가할 것 임.

질문 올해가 과소 읍면동 통폐합의 적기라 생각하는데 시장님의 생각은?

답변 같은 의견으로 금년부터 통폐합 착수에 들어갈 생각이며, 주민들의 의견, 시의원의 의견, 전문가의 의견을 종합하여 충분한 숙성절차를 거쳐 내년말까지는 반드시 통합을 마치도록 하겠음.

2015. 4. 17.(금) 10:00 ~

진해구 벚꽃 빗자루병 예방대책과 안민도로변 테크로드 관리 계획에 대하여

질문 진해구를 한마디로 대표하는 것이 균형제이고 벚꽃임. 벚나무의 보존과 육성에 대한 노력과 현황은?

답변 매년 벚나무에 대하여 가지치기를 하고, 병충해 방제를 실시하고 있음. 또한, 썩은가지와 잎에 대해서는 외과수술과 벚나무 빗자루병 방제를 실시하고 있음.

질문 진해에 벚나무가 몇그루 정도 되는지 파악하고 있는지?

답변 총 35만4천여본이 자생하고 있음. 산림공원과 직원 5명이 관리하고 있음.

질문 빗자루병에 걸린 벚나무 수는 어느정도 파악하는지?

답변 추정본수로 1만여본 정도 임.

질문 실효성있는 방재계획과 예산 확보 방안은?

답변 1본당 10만원에서 15만원 정도 소요되며, 약 15억원의 예산이 추정됨. 장기적인 방재계획 수립과 예산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음.

질문 진해쪽 안민도로변 테크로드의 조성연도와 비용은?

답변 보행객 안전과 관광자원 조성의 일환으로 2000년부터 2005년까지 총18억원을 들여 4km를 조성

질문 테크로드의 관리계획에 대한 방안은?

답변 전체적으로 연도별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점진적으로 예산을 편성하여 적기에 보수가 될 수 있도록 추진 하겠음.



김 현 일 의원
(기획행정위원회)

제47회 창원시 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이 옥 선 의원
(도시건설위원회)

마산장애인 복지관 이전과 관련하여

질문 우리시 장애인복지관 현황은?

답변 우리시 장애인복지관은 창원, 마산, 진해 각 1개소 씩 3개소가 있음. 1일 평균 이용자는 창원450명, 마산 진해지역이 각 400명 전체 79명의 종사자가 근무하고 있음. 창원장애인 복지관은 2001년, 마산장애인 복지관은 2003년 리모델링 개관, 진해장애인 복지관은 2004년 건립하였음.

질문 건축면적을 보면 창원은 1,135평, 진해는 305평, 마산은 160평 정도 규모임. 규모면에서 엄청난 차이를 보임. 각 지역별 장애인 현황은?

답변 2015년 3월 현재 장애인 등록현황은 창원지역 18,938명, 마산지역 21,405명, 진해지역 8,133명으로 총 4만 8,476명임.

질문 현재 요구되고 있는 장애인복지관 건립에 대한 시의 입장은?

답변 마산장애인 복지관은 1996년도에 노인회관으로 건립하여 지금까지 운영되고 있음. 장애인 복지관 건립에 여러 가지 문제 중 가장 중요한 부분이 마산 장애인 복지관 건립 부지 확보임. 장애인 복지관쪽에서 요구해온 부분이 최소 6,600㎡, 한 2천평정도가 소요됨. 그런 부지를 마산지역에서 구하기는 어려움이 많음. 빠른 시간내에 이전 부지를 확보토록 노력하겠음.

질문 기존 공공건물 활용에 대해서 요청한 바로 알고있는데 거기에 대한 구체적 검토 부분에 대한 답변 바람.

답변 중앙부두 내 국가기관 불용청사에 대하여 검토한바 있으며 그지역의 장기적인 관점에서 전체 워터프론트라든지, 또 계획에 같이 접근해야 하기 때문에 사실상 어렵다는 의견임.

질문 창원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개최되지 못한 이유는?

답변 2010년도에 지역건설산업발전위원회를 구성 운영하고 있음. 2014년도에 4회에 걸쳐 창원시 건설협의회 관계자와 간담회를 개최하고 협의하였음. 지역건설업체 수주율 제고 및 하도급 참여확대 방안과 애로사항 수렴 등 다양하게 소통하고 있음.

질문 대행사업에 우리시 관련업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시의 대책은?

답변 지역경제활성화와 지역업체 육성보호를 위해서 낙찰된 원도급사와 계약 체결할 때 건설공사 하도급은 창원시 관내 전문공사업체와 계약을 체결토록 명시해서 공문을 통보하였음. 또한 자체적으로 관급자재선정심의회를 운영해서 자재선정시에는 관내에서 생산되는 제품을 사용토록 발주부서에서 적극 권유함.

2015. 4. 17.(금) 10:00 ~

질문 장애인복지관 건립과 지역업체 건설산업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 등에 대한 시장님의 고견은?

답변 장애인들의 요구를 충족할 수 있는 복지관 건립비가 약 180억 정도 소요됨. 재정여건상 장기적인 관점에서 접근해야 함. 지역업체 대항 건설참여 활성화 방안은 지역건설업체 공동도급 및 하도급 참여 비율을 높이도록 조례로 권장하고 있음. 지역건설업체 참여확대를 위해서 전 부서에서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이고 있음.

질문 장애인 복지관을 장기적으로 검토한다고 했는데 얼마의 기간인지?

답변 재정상태가 좋지 않고 장애인들에게 소요되는 복지비용이 굉장히 많은 점 헤아려 주기 바람. 그렇다고 이 비용을 줄일 수도 없고, 기타복지, 기초노령연금, 무상보육, 급식등 엄청난 비용이 지출되고 있음. 특히 무상보육과 기초노령연금은 거의 2배가량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음. 금년도 복지비용이 37%로 예산이 많이 부족함. 적어도 4~5년정도 이상의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생각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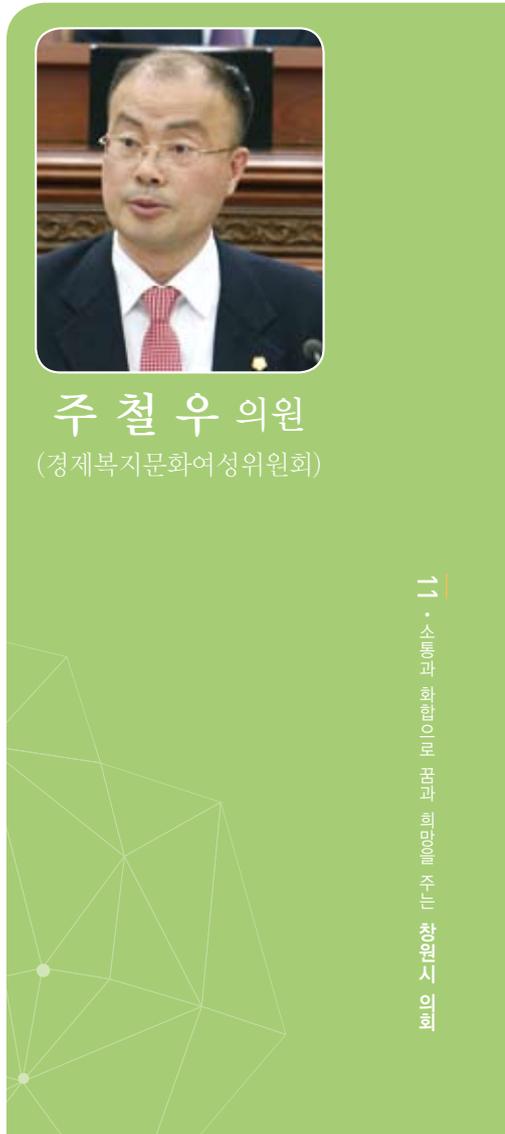
시립예술단의 운영 적절성과 관련하여

질문 시립예술단 노동조합의 설립시기와 운영은?

답변 시립예술단체는 2003년 4월15일에 설립되어 현재 시립예술단원 265명 중에 112명이 노조원으로 결성해서 각자의 회비에 의해 운영 되고 있음.

질문 시립예술단 설립 후 2014년도 한 해에만 두 번의 오디션은 보는 사상 초유의 일이 발생되었음. 시립예술단 복무규정에 오디션은 1년마다 볼 수 있다는 규정이 있는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것은 설득력이 떨어짐. 이 과정에서 오디션이 부당하다고 생각한 단원들이 거부를 하여 정직원 인원이 61명인데 맞는지?

답변 논란이 있는 부분은 2013년도에 정기평정은 단체협약을 하면서 매년실시하게 되어있음. 그런데 당초 통합이후에 2012년도에 한번 하였고, 2013년도에 하는 과정에서 시립예술단의 공연과정에 여러 가지 활동을 하다 보니 연말로 밀렸음. 그러한 이유로 연말에 오디션을 보고 다음해 2014년도에도 오디션을 보게 되어서 두번 실시한 것으로, 한해 두 번 실시한 것은 아님. 오디션 거부자에 대한 징계는 61명으로 해촉 1명, 출연정지 5명, 감봉 17명, 견책 38명 임.



주철우 의원

(경제복지문화여성위원회)

제47회 창원시 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질문 시립예술단 징계와 관련하여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절차상의 이유를 들어 노조가 제기한 부당징계,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받아들였는데 절차상의 하자는 무엇인지?

답변 부당노동행위부분은 지방노동위원회에서 기각이 됨. 징계가 부당하다는 부분은 징계사유는 되는데 단지 문제가 된 부분은 별도의 징계위원회를 구성하지 않고 운영위원회에서 징계를 한 절차상의 문제임. 규정상으로는 운영위원회에서 징계를 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으나 법적다툼 보다는 조기에 시립예술단을 정상화하자는 뜻에서 노동위원회의 의견을 수용하였음.

질문 운영위원회에 반드시 시의원을 참여시킨다는 명문규정은 없지만 그간 지속적으로 운영위원회에 참여한 시의원이 있었으나 이번에는 일방적으로 배제하였음. 그에대한 설명 바람.

답변 시립예술단 운영위원회 위촉기간은 2년으로 2년 임기가 만료됨에 따른 당연해촉이며 일방적 배제는 적절치 않음. 새로운 운영위원회 구성을 하고, 별도의 징계위원회도 구성하여 징계절차를 밟은 것 임.

질문 지역특성화 사업에 따른 시립예술단 운영계획 및 사업의 골자는?

답변 마산시향이 그동안 3.15아트센터에서 공연을 해왔고 근거지를 두었으나 통합이후 성산아트홀로 이전 하였음. 마산지역에 교향악단을 활성화시키고 진해지역은 무용의 도시로 성장 발전을, 창원지역은 합창단의 도시로 만들겠다는 차원에서 방향을 설정하였고 그에 따른 문화콘텐츠 프로그램은 지속적으로 보완 운영한다는 계획임.

질문 예술분야에서는 순수예술과 대중예술의 장르가 파괴되고 미술과 음악이, 음악과 무용이 어우러진 그러한 무대가 펼쳐지는데 세줄짜리 시립예술단 운영계획은 이러한 시대의 흐름과 역행이 아닌지? 지극히 졸속적으로 만들어진 것이라 생각하는데 동의하지 않는지?

답변 지역특성화에 대한 논의는 2012년부터 거론되어 왔고 의원님이 주장하신 장르의 융합 복합이지, 장소를 한군데 모아야 하는 융합 복합은 아니라고 생각함. 오히려 이시대는 창의적이고 독창적인 특화된 문화로 전문성이 더 강조되는 시대여야 한다고 생각함. 2월 특성화사업 이후로 시향, 무용단 등 단별로 공연이 재개되고 시립예술단이 정상화 되어가고 있음.

2015. 4. 17.(금) 10:00 ~

성산구 대방동 시내버스 회차장 이전과 관련하여

질문 성산구 대방동 회차장의 조성경위와 운영실태에 대해 설명바람.

답변 대방동 시내버스 회차장의 조성 목적은 1997년도 11월에 버스 이용 접근성 및 대중교통 이용편의를 고려하여 시내버스 주차 30면과 기사휴게실, 화장실, 식당 등 부속시설을 조성하였음. 전체면적 4,867㎡중에 1,700㎡는 인근 주택지 주민들의 주차편의를 위해서 59면의 주차공간을 무료로 현재 사용중임. 운영실태는 8개사에 시내버스 33개 노선276대가 1일 1,530회로 운영을 하고 있음. 창원시 전체 14개소의 시내버스 회차장이 조성되어 1일 30만명의 대중교통 이용객이 이용하고 있음. 이중에 대방동 회차장도 포함 운영 중임.

질문 대방 회차장에서 밤샘주차를 하는 차가 40대인데 이 경우 시내버스 밤샘주차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위반임. 임시주차장을 지금 회차장으로 사용한지 18년간인데 이 노외주차장의 설치 법적 근거는 무엇인가?

답변 주차장법상 노외주차장은 도로의 노면 또는 교통광장외의 장소에서 자동차의 교통 소통을 원활하게 하고 공중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자동차주차를 위한 시설로서 일반이용에 제공되는 것으로 법적근거는 주차장법 임.

질문 회차장 설치의 입법취지에는 이 주차장을 조성한 것은 일반차량이 들어 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강제적으로 만들어 놓은것인데 우리시에서는 18년간 시내버스의 일반 차량의 접근을 금지하고 있음. 이것은 상위법에서 정하고 있는 주차장법에서 강제적으로 조성한 주차장에 18년간 일반 차량의 주차를 금하고 있는 것은 행정의 재량권을 넘어서는 것이라 생각하는데 견해는?

답변 전체면적중에 1,700㎡는 별도로 승용차가 주차를 할 수 있도록 주차장을 만들어 놓았음. 법해석의 차이라 생각함.

질문 회차장 주변의 악취와 교통사고의 위험에 절대적으로 노출되어 있는 상황임. 이러한 회차장의 입지가 종합적으로 맞다고 생각하는지?

답변 현재 대방 회차장이 5천㎡규모에 대체부지 확보는 사실상 어려운 실정임. 그런 좋은 조건에서 대체부지를 조성하더라도 또 다른 해당 지역에 제3자의 민원이 수반되고 많은 예산이 소요됨. 여러 가지 여건상 현재 대방 회차장 운영은 불가피한 사항임을 이해해주시기 바람.



김석규 의원
(기획행정위원회)

제47회 창원시 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15. 4. 17.(금) 10:00 ~

질문 성주공영차고지 운영사항에 대해서 설명바람.

답변 성산구 불모산로 48번길 4번지에 버스 주차면수 300대 규모와 관리동 4동, 세차장, 부속창고 1동으로 4개 업체에서 하루 200여대의 시내버스가 성주공영차고지를 이용 중임.

질문 대방동 회차장 관련 입법취지의 이해와 이전계획수립 및 성주공영 주차고지를 제대로 활용하는 것이 지역주민의 오랜숙원 사업임. 시장님의 입장은?

답변 대방동 회차장은 다수의 시민들에게 대중교통 편의제공 측면에서 긍정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지만 일부 인근 지역주민에게 불편을 주고 있음. 앞으로 불편사항을 간과하기보다 최대의 대중교통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인근주민의 불편사항도 해소 될 수 있도록 대방동 종점 노선 중 일부 노선을 성주시내버스 공영차고지로 종점을 변경하여 대방동 회차장 이용차량을 최소화 하겠음.
밤샘주차 차량은 성주시내버스 공영차고지로 이전 시키는 등 회차장 이용차량을 최소화 하고 환경개선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음.

질문 웅동글로벌테마파크 관련 경남도의 추진사항이 올4월에 분할 합의 하고 5월에 투자자 모집후 spc구성, 6월말에 컨셉 제안을 문체부에 함. 전체적인 일정이 상당히 촉박하며 현사업이 현실적으로 가능하나에 대해서 투자자모집의 문제가 있음. 만약 사업이 표류 될 경우 창원시의 입장에서는 여러문제가 발생되는데 우리시의 대책방향은?

답변 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테마파크가 성공하면 1조원 이상 투자가 되기에 우리시에는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도와 협조를 할 것임. 그러나 분필문제 등 여러 대두되는 문제점에 대한 대책은 지금 협의를 하는 중임. 시의회와도 면밀히 협의해서 대책을 수립하겠음.

2015. 4. 14. (화)

REMARK



제47회 창원시 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이상인 의원
(경제복지문화여성위원회)

다문화가족의 실질적, 체계적 지원을 촉구하며

다문화가족의 실질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을 촉구한다. 결혼이민자에 대해 검정고시를 포함한 각종 자격취득의 기회를 위한 행정적인 지원이 절실하며, 다문화 가정 자녀의 언어발달 지원을 통해 글로벌 인재로 키워낼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다문화캠프를 정기적으로 개최할 것을 제안하며, 그들이 사회구성원으로 삶의 권리를 누릴 수 있게 해야 한다.



정쌍학 의원
(기획행정위원회)

마산장애인 복지관 이전을 촉구하며

마산합포구 마산장애인복지관의 이전을 촉구한다. 고지대에 위치한 마산장애인 복지관의 접근성 어려움, 교통사고 위험 등이 있어 이전에 대한 목소리가 높았으나 10년이 훨씬 지난 지금까지도 여전히 해결방안을 찾지 못하고 있다. 또, 재활치료에도 많은 불편을 겪고 있어 복지관 이전 시 장애인 재활스포츠센터를 포함시켜 줄 것을 요구한다.



이치우 의원
(환경해양농림축산위원회)

용원 일반산업단지 조성관련 주민입장

진해 용원일반산업단지의 승인 거부를 촉구한다. 용원산단 신청 예정지는 6,644가구 아파트 단지과 100m밖에 떨어지지 않은 곳으로 부적합하다. 주민들은 인근 레미콘 회사로 인해 30년 넘게 진동, 소음, 분진 등으로 피해를 겪어왔다. 주민이 처한 상황과 입장을 전혀 고려치 않고 일반산업단지 승인을 해준다면 주민들의 저항에 부딪히게 될 것이다.



김이근 의원
(환경해양농림축산위원회)

마산 진북면 신촌리 문암마을 이주대책에 관하여

레미콘 공장 입주에 따라 마산합포구 진북면 문암마을을 이전해야 한다. 문암마을 인근 농공단지에 레미콘 업체가 들어와 있는 상황에서 또 다른 레미콘 업체가 입주를 시도,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다. 레미콘 공장이 들어서면 마을과 떨어진 거리는 불과 5m 정도로 사람이 더욱 살 수 없는 마을이 되기 때문에 마을을 옮겨야 한다.



이혜련 의원
(도시건설위원회)

마산 ~ 진해 열차 운행중지에 따른 진해역의 역사 및 주변부지 활용

마산~진해 열차운행 중지에 따른 진해역사 및 주변부지 활용을 제안한다. 진해역사는 원형이 잘 유지돼 있고 지난 2005년 등록문화재로 지정됐다. 역사는 진해 군항 100년의 역사를 알리는 전시장으로 이용하고 광장은 문화예술을 통한 시민들의 소통의 장으로 활용되기를 바라며, '에코뮤지엄 시티 사업'에 진해역 역사도 포함시켜야 한다.

2015. 4. 21. (화)

REMARK



제47회 창원시 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김 하 용 의원
(경제복지문화여성위원회)

육군대학 진해파크 조성 · 도시계획 변경 제안

구)육군대학부지를 경남도와 미국 폭스사가 조성계획하고 있는 진해 글로벌 테마파크와 연계한 진해파크로 조성하고, 주변의 도시계획을 변경하여 도시를 재탄생 시키고, 주상복합건물이 들어 설 수 있도록 한다면 민간업체는 사업성이 생기게 되고, 주민은 좋은 환경에 삶의 질이 상승되어 도심의 재생이 순조롭게 진행될 거라 여겨진다.



노 창 섭 의원
(도시건설위원회)

서민자녀 교육지원 조례 제정을 중단하라

경남도가 무상급식비 예산으로 18개 시·군에 ‘서민자녀 교육지원 조례’제정을 독촉하고 있으나, 복지제도를 신설하거나 변경할 때 반드시 보건복지부 장관과 협의하도록 명시한 ‘사회보장법’을 위반한 조례이며, 바우처 사업과 창원시 ‘교육 경비 보조 사업’과 도교육청의 ‘학교시설 교육환경 개선사업’과도 중복되기 때문에 조례 제정 거부를 촉구한다.



이 민 희 의원
(환경해양농림축산위원회)

무상급식 지원중단 철회해야 한다

경상남도만 왜 유상급식으로 전환해야 하는 것인가? 오늘도 무상급식 종단을 반대하는 시민, 학부모들과 학생들의 분노와 외침으로 쓰여진 현수막과 피켓들로 가득하다. 어느 부모든 제 자식 입에 들어가는 밥그릇을 뺏는데 가만있을 부모는 없을 것이다. 밥상머리에서 받은 설움이 평생 간다는 것을 기억하고 무상급식 즉각 시행하라.



송 순 호 의원
(도시건설위원회)

홍준표 지사는 뇌물수수 혐의 사과하고 사퇴하라

갈등을 키우는 도지사, 민주주의의 무시하는 도지사, 강제력이 없다며 법을 우습게 보는 도지사, 업무시간에 골프를 치는 도지사, 도민의 대표기관인 도의회에서 영화를 보고도 잘못이 없다고 우기는 도지사, 뇌물수수 의혹을 받고 있는 도지사는 더 이상 경남도민들을 괴롭히지 말고 도지사직에서 즉각 사퇴하라.



김 중 대 의원
(경제복지문화여성위원회)

국민을 비굴하게 만드는 정치와 행정이 가장 나쁜일이다

복지는 인간과 미래에 대한 투자이고, 국가경쟁력이며 행정의 궁극적 목적이자 가치다. 그리고 행정행위를 함에 있어 예측 가능한 행정과 그 대상이 되는 지역민들의 동의와 협력을 구하는 과정이 진정한 목민관의 덕목이라고 생각한다. 도백의 임무를 수행함에 있어 자중자애하실 것을 엄중히 권고한다.

제48회 창원시 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2015. 5. 11. (월)

REMARK



박 춘 덕 의원
(도시건설위원회)

창원 소방본부 청사 조기 신축

창원소방본부는 진해소방서에 소방정책 사무실을, 창원소방서에 119 종합상황실을 두는 이원화 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지난 2012년 진해구 풍호동에 소방건물을 신축하는 것에 의회가 승인하고 집행기관의 이전 수립 절차까지 마쳤다. 재정 건전성을 이유로 추진하지 않는 것은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방치하는 것이다.



이 민 희 의원
(환경해양농림축산위원회)

한부모 가정에 따뜻한 통합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자

창원시 저소득 한 부모 가족 현황은 2,828가구 7,317명으로 저소득층에 등록되지 않은 한 부모 가족을 포함하면 약 26만명이 넘는 것으로 추정된다. 한 부모 가족이 편안하고 안정적인 직장생활을 하며 아이들을 돌볼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경로당과 연계 한 '방과 후 돌봄 서비스'를 시범적으로 운영할 것을 제안한다.



손 태 화 의원
(도시건설위원회)

우리시 경로당 정책의 변화를 촉구하며

아파트 단지는 법적의무 경로당으로 지어져 있고 읍면지역은 마을별 경로당이 있다. 단독주택지역은 기존 주택을 매입, 리모델링해 1층은 여성경로당, 2층은 남성경로당으로 사용하고 있다. 단독주택지의 소규모 경로당 2~3개 통합해 거점 경로당으로 만들어 취미생활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해야 한다.



송 순 호 의원
(도시건설위원회)

평성산업단지에 주민체육시설 포함해야

평성산업단지는 부족한 산업용지의 확보와 일자리 창출, 기업과 인구의 유출을 막고 지역주민과 공생할 수 있는 창조형 산업단지로 만들어야 한다. 마산지역의 체육시설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만큼 지역주민들의 편의 증진과 공공의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토지관리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2015. 5. 13. (수)

REMARK



제48회 창원시 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김종대 의원
(경제복지문화여성위원회)

일본군 위안부 추모 조형물 건립사업 진행에 대하여

정부에 등록된 위안부 피해 할머니 237명 중 경남이 가장 많고 현재까지 생존자 53명 중 5명이 창원에 있다. 위안부 추모 조형물 건립을 위해 현재까지 어린학생 부터 시민·종교 단체 등이 모금해 9900여만원이 모였으며, 소녀상은 마산합포구 오동동 3·15 발원지 쪽에서 오는 8월 초 제막식을 할 것이다.



김석규 의원
(기획행정위원회)

어린이집 계약직 보육교사의 퇴직금 문제에 대하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는 퇴직금은 1년 이상 계속 근로한 근로자가 퇴직하는 경우 지급하도록 되어 있다. 최근 대법원은 364일 동안 계약한 기간제 교사에게 퇴직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퇴직금을 받지 못한 계약직 보육교사의 현황을 파악해 퇴직금을 받을 수 있도록 행정조치를 마련하라.



방종근 의원
(도시건설위원회)

과대동 및 원거리동의 분동 필요성에 대하여

공무원 1인당 주민수가 많으면 그만큼 행정서비스는 약화될 수밖에 없고 경쟁력 있는 행정력을 확보하는 데는 어려움이 많다. 팔룡동과 법정동인 대원동은 거리가 4km나 떨어져 있다. 인구 5만명이 넘는 과밀동과 원거리로 불편이 가중되고 있는 대원 및 팔룡동에 대해서는 조속히 분동해야 한다.

독도관련 일본 중학교 교과서 검정·승인 취소 촉구 결의문

일본 문부과학성은 2015년 4월 6일 독도 영유권 주장을 한층 강화한 ‘2015년 중학교 교과서 검정 결과’를 발표하면서 지리·공민·역사 3과목 18종의 모든 교과서에 작년 발표한 교과서 제작 지침서 격인 ‘학습지도 요령 해설서’를 처음 적용하여 ‘독도는 일본 고유의 영토’이며 ‘대한민국이 불법점거하고 있다’는 내용과 4월 7일 공개된 2015년 외교청서에 독도에 대해 ‘역사적 사실에 비취도 국제법상으로 명백한 일본 고유영토’로 왜곡 기술하고 있다.

이는 대한민국의 영토주권을 침해하는 명백한 도발행위로서 현재는 물론 미래의 양국관계에 심각한 부정적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며, 나아가 일본제국주의의 피해를 입은 다른 국가의 평화와 번영까지도 위협하는 행위임을 직시하여야 할 것이다.

독도가 대한민국 영토임을 잘 알고 있는 일본의 극우 정치인들은, 독도 영유권 주장이 허구임을 알면서도 지속적으로 독도를 국제 분쟁지역으로 이슈화하여 그들의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려는 고도의 책략과 술수를 부리고 있는 것이며, 이 터무니없고도 후안무치(厚顔無恥)한 일련의 행위에 대하여 깊은 우려와 유감을 표명하지 않을 수 없다.

일본 정부는 침략 역사와 같은 잘못된 과거를 통절히 반성하고, 한·일 양국의 미래지향적 발전을 위해 즉시 관련 교과서의 검정·승인을 취소해야 할 것이고 그렇지 않을 경우 우리 정부는 국제사회와 함께 일본의 역사 왜곡에 대해 지속적이고 단호한 대처방안을 모색함과 동시에 식민제국주의와 전범국으로서 자행한 일본의 침략과 모든 악행을 전 세계에 알리는데 다각적인 수단과 방법을 총동원할 것이다.

창원시의회는 108만 창원시민과 함께 독도가 역사적, 지리적, 국제법적으로 명백한 대한민국의 영토임을 천명하면서, 일본은 왜곡된 교과서 검정 승인을 조속히 취소하고, 정부도 독도 영유권에 도전하는 일본의 어떠한 행위도 단호하고 엄중하게 대처하여 줄 것을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 1 독도는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명백한 대한민국 고유의 영토임을 다시한번 천명하고 일본 정부는 대한민국의 독도 영유권과 관련한 일체의 주장과 조치들을 즉각 철회하고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 2 일본 정부는 독도를 자국의 영토로 왜곡 주장하고, 대한민국이 독도를 불법점거하고 있다는 잘못된 중학교 교과서를 검정·승인한 것에 대해 진심으로 사죄하고 즉각 철회를 요구한다.
- 3 정부는 우리의 영토인 독도에 대한 일본의 어떠한 주장과 행위에 대하여 결코 용납하지 아니한다는 확고한 의지를 국민과 전 세계에 명확히 알리고 독도 수호를 위해 최선의 방법을 강구할 것을 촉구한다.
- 4 대한민국 국회는 독도 영유권 수호에 강력히 대응할 것과 국제사회와 연대하여 독도 문제에 대한 국제적 여론 형성에 적극적으로 나서 줄 것을 요청한다.

2015. 4. 21

창원시의회 의원 일동



의회운영위원회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김재철)는 제46회 창원시의회(임시회) 폐회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47회 창원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4. 14. ~ 4. 21.(8일간) 개최하기로 하였고,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는 2015. 6. 8.(월) ~ 6. 16.(화) 9일간 실시하기로 원안가결 하였다.

제47회 창원시의회(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의회사무국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과 각 상임위원회별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협의의 건을 원안 가결하였다.

제47회 창원시의회(임시회) 폐회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48회 창원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5. 11. ~ 5. 13.(3일간) 개최하기로 하였다.

제48회 창원시의회(임시회) 폐회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49회 창원시의회(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을 6. 5. ~ 6. 30.(26일간) 개최하기로 하였다.



기획행정위원회

기획행정위원회(위원장 정쌍학)는 제47회 창원시의회(임시회) 기간중 ▷창원시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창원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2015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원안가결 하였으며 ▷기획행정위원회 소관부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을 승인 하였다.

제47회 창원시의회(임시회) 기간중 공유재산관리계획의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한 주요현안 사업장 방문을 통한 위치 및 현황 파악을 위한 현동보금자리주택단지 가압장 설치 현장방문을 하였다.

제48회 창원시의회(임시회) 기간중 ▷창원시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 하였다. ▷제48회 창원시의회(임시회) 기간 중 세계사격선수권 대회 추진현황 및 시설물 점검을 위한 창원세계사격장을 방문 하였다.



경제복지문화여성위원회

경제복지문화여성위원회(위원장 이상인)는 제47회 창원시의회(임시회) 기간 중 ▷창원시 한부모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안, ▷창원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창원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창원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하였으며, ▷창원시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안, ▷창원시 창원국가산업단지 내 지식산업센터 건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수정가결하였다.

또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채택하였다.



환경해양농림축산위원회

환경해양농림축산위원회(위원장 전수명)는 제47회 창원시의회(임시회) 기간 중 ▷창원시 농가 소규모 식품가공사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수정가결하고, ▷창원시 해양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창원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하였으며,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작성하였다.

또한 제47회 창원시의회(임시회) 기간 중 4월 16일에는 돌섬을 현장방문하여 시설물 운영현황을 보고받고, 지역자원과 연계한 관광코스개발을 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제48회 창원시의회(임시회) 기간 중 5월 12일에는 안민도로와 장복산 등 빗자루병이 발병하여 빗나무가 고사하고 있는 현장을 확인하고 관계자와 방제대책을 논의하였으며, 목재문화체험관을 방문하여 운영현황을 보고받고 관광편의시설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였다.



도시건설위원회

도시건설위원회(위원장 김동수)는 제47회 창원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가 계획서를 작성하였으며, ▷월영광장 조성지 및 저도 연륙교 일대 현장 방문을 통하여 사업추진 상황 점검 및 현황 청취를 실시하였다.

제48회 창원시의회(임시회) 기간 중 ▷에코뮤지엄시티 진해, 제2안민터널, 이순신 리더십 교육센터 등 현장 방문을 통하여 진해지역 관광 활성화 방안, 진해 중부권 교통해소를 위한 신규도로망 조기 개설 방안 및 이순신 리더십 교육센터 완공 부대시설(주차장 등) 확충 방안에 대해 점검 및 현황을 청취하였다.



①



- ① 4월 1일 기업사랑 시민축제 참석
- ② 4월 1일 기업사랑 시민축제
- ③ 4월 3일 진해군항제 이충무공 승선행사 참석
- ④ 4월 3일 진해군항제 이충무공 승선행사 참석
- ⑤ 4월 7일 운영위원회 개최



②



③



④



⑤



①



- ① 4월 9일 SK지르콘 방문
- ② 4월 9일 동음 주민복지관 개관식 참석
- ③ 4월 13일 경남은행 창원중앙점 확장 이전식 참석
- ④ 4월 14일 제47회 창원시의회 임시회 개최
- ⑤ 4월 14일 구암1동 군산시 구암동민 창원시 의회 방문



②



③



④



⑤



①



- ① 4월 15일 해병대 창설 제66주년 기념행사 참석
- ② 4월 15일 환경해양농림축산위원회 조례안 심사
- ③ 4월 16일 경제복지문화여성위원회 조례안 심사
- ④ 4월 16일 기획행정위원회 조례안 심사
- ⑤ 4월 16일 도시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 ① 4월 20일 의회운영위원회 조례안 심사
- ② 4월 21일 장애인의 날 기념식 참석
- ③ 4월 21일 제47회 창원시 의회 임시회 개최
- ④ 4월 22일 새마을운동 제45주년 새마을의 날 기념식
- ⑤ 4월 23일 제54회 도민체육대회 개막식



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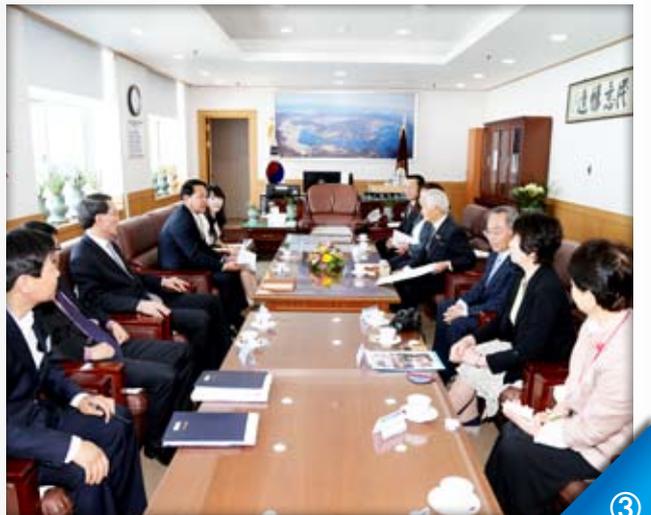
①



- ① 4월 23일 시설물위탁에 관한 연구회 자체간담회 개최
- ② 4월 24일 제54회 도민체전 개막식
- ③ 4월 27일 일본 다마나시 국제교류협회 의회 내방
- ④ 4월 28일 제27회 어린이회의 진행교실
- ⑤ 4월 29일 로컬푸드 정책전문가 및 농민단체 대표 초청 간담회



②



③



④



⑤



- ① 4월 18일 제10회 창원진동 미더덕 오만둥이 축제
- ② 4월 23일 제54회 경남도민체육대회 결단식 참석
- ③ 5월 1일 마산항 개항 116주년 개항 제례식 참석
- ④ 5월 1일 제38회 마산 가고파 큰잔치 참석
- ⑤ 5월 4일 의장단 간담회 개최



①



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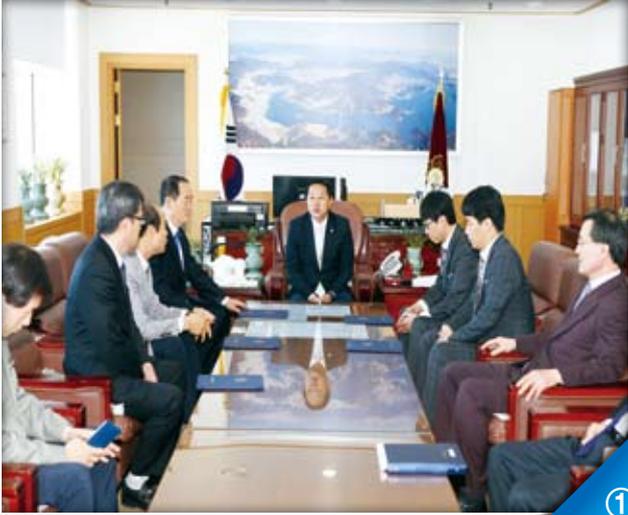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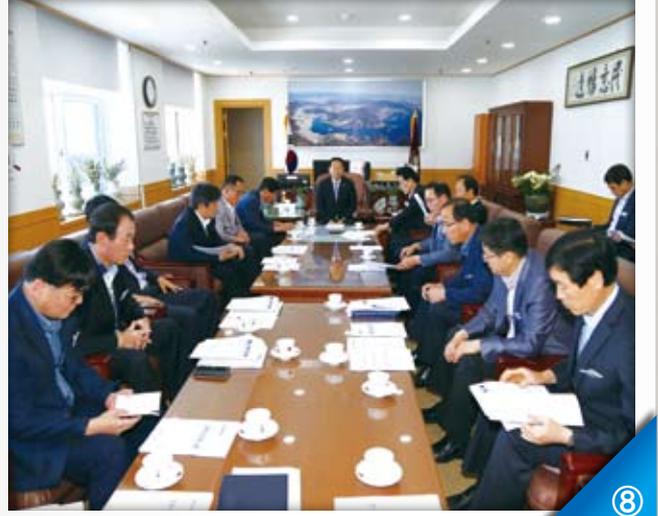


- ① 5월 7일 2014년 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위촉
- ② 5월 7일 진해노인종합복지관 개관 10주년 기념식
- ③ 5월 9일 제22회 창원수박 축제 참석
- ④ 5월 9일 제7회 마산아구데이 큰잔치
- ⑤ 5월 11일 제48회 창원시의회 임시회 1차 본회의 개최





⑦



⑧



⑨



⑩



⑪



- ① 5월 11일 창원산업진흥재단 설립 발기인 창립총회
- ② 5월 12일 마산종합스포츠 센터 건립공사 기공식 참석
- ③ 5월 13일 기획행정위원회 안건심사
- ④ 5월 13일 기획행정위원회 창원사격장 현장방문
- ⑤ 5월 14일 제3회 경남시군의회 한마음 체육대회 개최
- ⑥ 5월 18일 의정연찬회 실시 (수안보)
- ⑦ 5월 25일 부처님 오신날 정암사 봉축법요식 참석
- ⑧ 5월 26일 의장단 간담회 개최
- ⑨ 5월 28일 도시발전연구회 타시 비교견학 (세종, 전주시)
- ⑩ 5월 28일 창원광역시 승격 추진 토론회 참석
- ⑪ 5월 28일 제178회 경남시군의회 의장협의회 정례회

창원시의회 제47회 임시회 개회



창원시의회(의장 유원석)는 제47회 임시회를 개회하였다.

이번 임시회 일정은 4월 14일부터 4월 21일까지 8일간이며 이 기간 동안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시기와 기간 결정 및 창원시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비롯하여 창원시 창원국가산업단지 내 지식산업센터 건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13건을 다루며, 집행기관에 대한 시정 질문도 실시할 예정이다.

임시회 세부일정을 살펴보면 4월 14일 14시에 제1차 본회의를 개회하여 4월 15일부터 4월 16일까지 상임위원회별로 현장방문 및 조례안 심사

를 실시하고, 4월 17일 제2차 본회의에는 시정에 대한 질문을, 4월 21일 제3차 본회의에는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 및 각종 조례안 안건을 처리하는 것으로 임시회 일정을 모두 마치게 된다.

유원석 의장은 개회사에서 “창원시는 관광산업 육성을 통해 새로운 도약을 꿈꾸며 많은 재정과 인력을 투입하여 진해군항제와 국화축제, k-pop페스티벌 등 매년 다양한 축제와 행사를 개최하고 있으며 이러한 축제와 행사를 활용한 관광연계프로그램 개발을 통해

관광도시로서의 창원을 적극 알림과 동시에 지역주민의 소득 증대에 기여할 수 있는 관광 인프라를 구축해 나갈 것”과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수도권 규제완화정책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지방경제발전을 위해 노력해온 비수도권 지방자치단체의 노력에 찬물을 끼얹고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격차를 더욱 심화시키는 것이라며 수도권 규제완화정책에 대해 시민의 적극적인 관심과 창원시의회와 수도권 규제완화 중단노력에 함께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창원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주요사업 현장 시찰

경남 창원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위원장 김동수)는 제47회 임시회 기간 중인 4월 15일 주요 사업 현장을 시찰했다.

도시건설위원회 11명의 위원들은 월영광장 조성지 및 저도 연륙교 일대를 방문해 관계 공무원으로부터 사업 추진 현황을 청취했다.

월영광장 조성 사업은 창원 서부권역 진입광장 상징성 제고 및 문화·휴식 교류공간 조성은 물론 교통체계 개선을 통한 교통광장 기능 향상에도 기여하는 사업으로 오는 2019년 준공 예정으로 총 사업비 190억

원을 투입해 추진하고 있다.

또한 저도 관광 활성화 추진 사업은 빼어난 해안경관과 비치로드가 있는 저도의 관광 기반시설 확충 및 새로운 체험형 관광시설 개발로 저도 관광 활성화를 통한 지역경제 발전을 도모코자 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 53억 원을 투입해 추진하고 있다.

이 자리에서 김동수 위원장은

공무원들을 격려하고 해당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되어 지역 주민들의 문화·휴식 공간 조성은 물론 지역 경제 발전에도 기여해 줄 것을 당부했다.



창원시의회 환경해양농림축산위원회 주요사업 현장 시찰

창원시의회 환경해양농림축산위원회(위원장 전수명) 소속의원은
4월 16일 돌섬을 방문하여 운영현황을 보고받고, 주요 관광편의시설을 점검하였다.

2011년도 재개장된 이후 관광객이 꾸준히 증가하며 사계절 관광섬으로의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는 돌섬은 창원시가 관광지 활성화를 위하여 추진 중인 주요 관광지로써 이날 현장점검에서는 돌섬을 명품 관광섬으로 만들기 위한 계획

을 보고받고 관광편의시설 등 전반적인 사항을 점검하였다.

현장을 방문한 의원들은 마산 어시장 등 지역자원과 연계한 이벤트와 자연과 어우러진 돌섬 개발로 관광객이 매년 증가하고 있어 관계자들을

격려하고, 많은 사람들이 다시 찾는 돌섬이 될 수 있도록 인프라 확충과 편의시설 관리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하였다.

관내 초등학생 창원시의회 견학 “우리도 미래의 시의원”

4월 28일 창원시 관내 초등학생 회장단, 교사, 학부모 등 150여명은 창원시의회를 견학 방문하여 의회 본회의장에서 “초등학생 인터넷 중독 예방을 위한 환경개선안”이라는 주제로 “모의 의회”를 개최하였다.

참여 학생들은 의원과 공무원의 역할 분담을 통해 민의의 전당인 의회에 대한 견문을 넓히고 의회에서의 입법과정을 이해하는 현장 교육의 귀중한 시간을 가졌다.

유원석 의장은 환영 인사에서 “이번 방문을 통해 지방의회의 역할과 기능을 잘 이해하여 앞으로 이 나라의 초석이 될

여러분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라며, 사회가 꼭 필요로 하는 인재로 성장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모의 의회 체험전 새창원청년회의소(회장 송성명) 주관의 ‘제27회 어린이 회의진행교실’이 의회 대회의실에서 운영되어 참석 학생들에게 회의진행 방법에 관한 강의를 통해 올바른

회의진행과 건전한 토의문화를 습득할 수 있는 기회를 심어 주었으며, 의회 홍보 동영상을 통해 시의회의 역할과 기능에 대해 배우게 되었다.



창원시의회 로컬푸드연구회 정책 활성화 방안 모색



창원시의회 의원연구단체인 로컬푸드연구회(대표의원 노창섭)는 4월 29일 농업기술센터 별관에서 로컬푸드정책전문가, 시의원, 농민대표 등 2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로컬푸드사업 발전방향 모색 강구 등 의견교류의 시간을 가졌다.

이 자리에는 경남대학교 김종덕 사회학교수, 경상남도 친환경 농업인연합회 창원시지부장, 창원시 로컬푸드 생산자 협의 회장, 농민단체 대표 등 로컬푸드 사업과 관련된 각계 분야의 전문가와 농업인, 관계자가 함께 한 자리인 만큼 다양한 의견교류와 실효성 있는 방안 제시등 활발한 논의가 오고 갔으며, 특히 시장지향적인 대농가 중심의 현 구조에서 탈피하여 소농가, 고령농가,

귀농인을 위한 정책적 지원에 다함께 노력해야 한다는 인식에 공감하고, 이를 제도화하기 위한 지원조례안 제정 등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 논의가 있었다.

이에, 노창섭 대표의원은 “창원시 로컬푸드 사업의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확산되고 있는 시점에 의원연구단체 회원들과 전문가뿐만 아니라 농민 당사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우리시 로컬푸드 사업의 발전 방안을 논의하는 뜻 깊은 시간이었다”며 “앞으로도 우리시에 적합한 로컬푸드 정책 방향모색을 위해 지속적인 간담회와 공청회 등을 개최하여 지역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함께 공유하고 이를 정책에 반영시키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제177회 경남시군의회의장협의회 정례회 개최

경남 시·군의회의장협의회(회장 유원석, 창원시의회의장)는 지난 4월 30일 하동군의회 특별위원회실에서 제177회 경남시군의회의장협의회 정례회를 개최했다.

유원석 창원시의회의장을 비롯하여 김봉학 하동군의회 의장 등 경남시군의회 의장 14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날 정례회는 유원석 회장의 개회사, 김봉학 하동군의회 의장의 환영사에 이어 의정 업무 유공자에 대한 표창패 수여식이 있었다.

이후 협의회 간사로부터 의장 협의회 활동사항에 대한 보고와

함께 공동 현안사항 해결을 위한 토의시간을 가졌으며, 현안사항 토의시 참석한 경남 시·군의회 의장들은 서민자녀 교육지원 조례에 대한 열띤 토론을 벌인 끝에 주민여론을 반영하고 무상급식 중단에서 부터 비롯된 현 사태의 심각성을 공감하여 조례 통과를 보류하는 방향으로 의견을 모았다.

또한 현재 경상남도의회에서

제시한 무상급식 중재안에 대하여 경상남도과 경상남도 교육청에서 절충점을 찾아 조속한 시일 내에 원만한 합의를 통해 도민들의 우려를 해소해 줄 것을 주문하였다.

이 외에도 이날 회의에서는 경남 시·군의 현안에 대한 공조체제 강화와 상생협력을 위한 다양한 의견이 많이 나왔다.



창원시의회 좋은조례 연구회 제도개선 조례 발굴 나서

창원시의회 연구단체인 좋은조례 연구회(대표의원 노판식)는 타 자치단체의 우수조례 발굴과 자료수집을 위해 지난 4월 30일 포항시 견학에 나섰다.

포항시의회를 방문한 연구 위원들은 포항시 의회로부터 우수조례와 모범조례에 대한 사례들을 청취하고 의견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또한, 지방자치제도 개선과 발전을 위해 포항시의회와도

지속적인 교류활동을 전개하여 상호협력과 공동의제 발제 연구 등 조례 입안 활동에 적극 협조해 나갈 것을 밝혔다.

노판식 좋은조례 연구회 대표 의원은 “앞으로도 우리 연구회는 현실과 맞지 않는 조례의

제·개정 활동과 시민 복리 증진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조례 발굴에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다.

창원시의회 제48회 임시회 개회



창원시의회(의장 유원석)는 제48회 임시회를 개회하였다.

창원시의회(의장 유원석)는 11일 제48회 임시회를 개회하고 13일까지 3일간의 일정에 들어갔다. 시의회는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집행부에서 발의한 창원시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심의 의결하고 상임위원회별로 현장방문을 실시 할 예정이다.

임시회 세부일정을 살펴보면 5월 11일 14시에 제1차 본회의를 개회하여 임시회 회기결정 및 박춘덕, 이민희, 손태화, 송순호 의원 등 모두 4명의 5분 자유발언을 실시하고,

5월 12일 상임위원회별로 현장 방문 및 조례안 심사를 실시, 5월 13일 제2차 본회의에 조례안 및 기타 안건을 처리 하는 것으로 일정을 모두 마치게 된다.

유원석 의장은 개회사에서 본격적인 영농철을 맞아 일손이 부족한 농가에 일손돕기 지원 등의 지속적인 관심과 하절기 집중호우 및 폭염에 대비한 재해예방대책수립 등 사전 점검을 당부하였으며, 1991년 지방자치제도 부활이후 지방의회가 지역주민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지역을 위해 헌신 봉사하며 우리나라의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음에도 지방자치단체는 여전히 법·제도적인 한계와 재정의 중앙 집중으로 인해 중앙정부에 예속되어 있는 안타까운 실정이라며, 창원시의회는 집행기관 뿐 만 아니라 전국 광역·기초의회와도 협력하여 지방치법 개정과 지방재정확충, 지방분권강화 등을 통해 지역주민 모두가 스스로 주인이 되는 진정한 지방자치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해 나갈 것을 다짐하였다.

창원시의회 2014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위촉

창원시의회(의장 유원석)는 7일 오전 의장실에서 2014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회에 위촉장을 전달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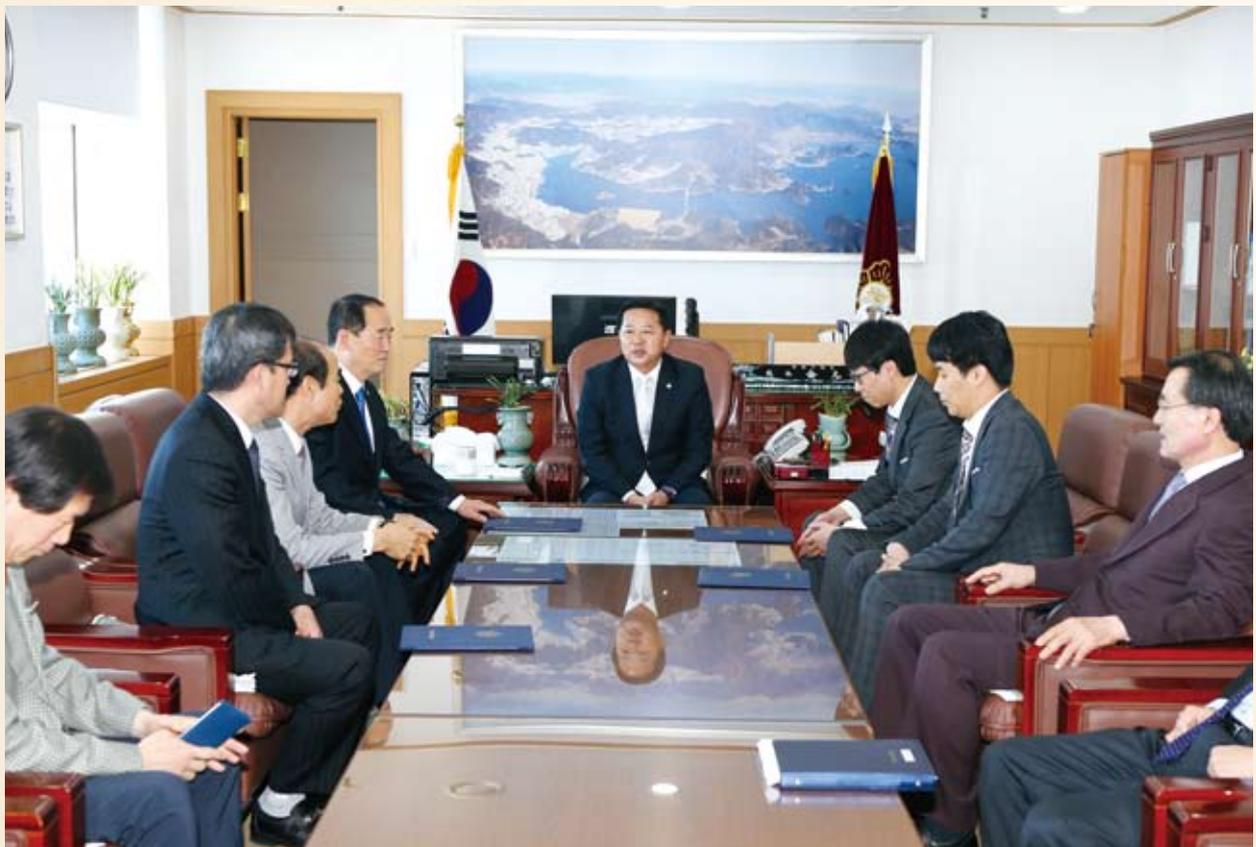
위촉된 위원은 지난 4월 14일 개의된 제4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선임된 방종근 시의원을 대표위원으로 하여 박용운 퇴직공무원, 배동범 세무사, 정동훈, 임성식 회계사 등 총 5명이다.

이들은 5월 11일부터 5월 29일 까지 19일간의 일정으로 창원시

2014회계연도 예산 편성 및 집행의 적정성 여부와 재정 운영의 효율성, 예산 낭비 사항 등에 대한 결산 검사활동에 들어간다.

이날 유원석 의장은 결산검사 위원에게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예산집행상의 문제점을 도출하여 이에 대한 개선사항

을 제시함으로써 내년도 예산 집행 시 예산이 낭비 되는 일이 없도록 적극적인 활동을 당부 했다.





창원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 창원세계사격선수권대회장 시설물 점검

창원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위원장 정쌍학)에서는 제48회 임시회 기간중 5월 12일 2018년 창원세계사격선수권대회 창원국제사격장을 방문하여 준비현황을 보고받고, 애로사항 등을 청취, 주요 대회시설물을 점검했다.

위원들은 이날 78년 서울 개최이후 2번째로 개최하는 대회인 만큼 국제규정에 부합하는 대회준비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시 관계자는 이번 현장점검을 통해 문제점을 사전 파악하여 완벽한 대회 준비를 위해 지속적으로 현장위주의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창원시의회 환경해양농림축산위원회 벚나무 ‘빛자루병’등 현장점검

창원시의회 환경해양농림축산위원회(위원장 전수명) 소속의원은 5월 12일 진해 안민고개 데크로드와 장복산 벚나무 ‘빛자루병’ 발생현황을 점검하고 목재문화체험장 등 진해드림파크를 현장방문하여 운영현황을 보고받고, 주요 관광편의시설을 점검하였다.

빛자루병은 벚나무에서 잔가지가 마치 빗자루 모양처럼 무더기로 돌아나는 병으로, 곰팡이 포자가 공기를 타고 가까운 벚나무로 날아가 병을 옮기기 때문에 확산될 가능성이 커 예방이 시급한 실정으로

이날 현장을 방문한 위원들은 진해구의 상징인 벚나무가 고사되지 않도록 치료예산 확보 등 피해가 커지지 않도록 방제에 만전을 기해달라 당부하였다.

한편 안민고개 데크로드 보수 및 목재문화체험관 등 노후된 관광편의시설 개선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하고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각종 시설물 관리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하였다.

창원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주요 사업현장 방문

경남 창원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위원장 김동수)는 제48회 임시회 기간 중인 5월 12일 주요 사업 현장을 방문했다.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들은 에코 뮤지엄 시티 진해 및 이순신 리더십 교육 국제센터 등 진해 지역 주요 사업장 일원을 방문해 관계 공무원으로부터 사업 추진 현황 및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에코 뮤지엄 시티 진해 조성 사업은 진해의 역사적 유희 자원과 다양한 스토리를 연계하여 관광자원을 창출하는

사업으로 오는 2016년 준공 예정으로 총 사업비 75억 원을 투입해 추진하고 있다.

또한 이순신 리더십 교육 국제센터 사업은 이순신 리더십의 세계화 및 브랜드화로 역사 문화 자원과의 융합 관광 콘텐츠 개발로 지역경제 발전을 도모코자 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 150억 원을 투입해 추진하고 있다.

이 자리에서 김동수 위원장은 관계 공무원들을 격려하고 해당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되어 관광 활성화는 물론 지역 경제 발전에도 기여해 줄 것을 당부했다.



제3회 경남시군의의회 의원 한마음 체육대회 개최



경남시·군의회의장협의회(회장 유원석, 창원시의회의장)는 경남시군의의회 의원들이 한자리에 모여 화합 및 체력증진을 도모하고 상호 정보교류로 의정활동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제3회 경남시군의의회 한마음 체육대회’를 지난 5월 14일 창원스포츠 파크 종합운동장에서 성황리에 개최되었다.

경남시군의 의원 250여명과 경남시군의의회 직원 등 총 7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펼쳐진 이날 행사는 안상수 창원시장, 강기윤·안홍준 국회의원, 김윤근 경상남도의회 의장, 김동진 경남시장군수협의회장(통영시장)을 비롯한 경남시장군수 등 많은 내빈이 참석하였으며 유원석 의장협의회장의 대회사를 시작으로 창원시장의 환영사와 내빈의

축사가 이어졌다.

또한 이날 행사의 의미를 더하고 경남시군의의원들의 한마음 한뜻으로 단결된 의지를 전달하기 위해 지방분권실현을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 정당공천제 폐지, 의정비제도 개선, 의회직원 인사권 환원 등의 내용을 담은 ‘성공적인 지방자치 확립을 위한 공동결의문’을 낭독하고 중앙정치권

에 조속한 개선을 촉구하였다.

이후 축구, 명랑운동회 등 체육경기를 통해 경남시군의의원들이 함께 달리고 뛰면서 뜨거운 우의를 다지고 지역과 정당을 초월한 화합의시간을 가졌으며 각 시군의 지역특산품을 경품으로 가져와 추첨하는 등 지역을 홍보하고 정보를 교류하는 소통의 장을 마련하였다.



창원시의회 도시발전연구회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청 등 현장견학

창원시의회 도시발전연구회(대표의원 김순식)는 지난 5월 28일 ~ 29일 양일간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청 및 전주시 등 도심지역 현장 방문을 실시했다.

연구회 위원 김우돌, 정쌍학, 이상인, 강장순, 강호상, 박춘덕 의원으로 구성되어 통합 이후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온 도시 현안 문제의 해결과 앞으로 창원광역시 승격에 대비하여 계획도시 및 구도심 지역에 걸 맞는 연구와 대안을 제시하여 시정 발전에 추진력을 더한다는 것이다.

이번 방문은 세종특별자치시의 광역계획권의 정비 및

개발방향, 관광자원과 교통축을 연계한 관광벨트 등 신생도시로서의 인프라시설, 기본현황을 관계자로 부터 설명을 듣고 시내투어에 직접 듣고 보고 느꼈다.

또한, 우리시가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관광산업화의 발전을 위해 전주시 한옥마을에 들러 구도심을 그대로 살려 많은 관광객의 유치와 수익을 올리고 있는 현장을

체험하고 벤치마킹하여 우리 시에도 접목 가능한 부분도 연구토록 했다.

도시발전연구회 김순식 대표의원은 앞으로 “창원시의 광역시 승격에 대비하여 통합전 3개시의 특성을 심층 분석하여 균형과 광역계획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고 시민 삶의 질을 높여 주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 연구하겠다”고 말했다.



창원시 의회 의장단과 초선의원과의 간담회 개최

창원시의회는 6월 2일 의장단(7명)과 초선의원(14명)의 간담회를 개최하여 2015년 제1차 정례회에 필요한 소양교육과 건의사항 및 애로사항 등을 청취하고 의정능력향상은 물론 다양한 의견들을 제시하였다.

이번 간담회는 초선의원들에게 다소 낯선 의회관련 용어와 법률용어, 조례를 입안할 시 유의사항, 행정사무감사 기법 등 의장단의 그간 쌓아온 노하우를 초선의원들과 함께 공유하는 뜻 깊은 자리가 되었다.

특히, 유원석 의장은 “초선의원들이 앞으로도 초심을 지켜가며 시민들의 기대에 부합하는 훌륭한 의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는 당부를 하였고, 간담회 참석 초선의원들도 “시의원 스스로가 실무능력과

전문성을 높여 의정활동에 긍정적인 효과를 낼 수 있도록 더욱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쳐 나가겠다”고 말했다.

창원시의회

좋은조례연구회, 지방재정 전문가 초빙 특강



창원시의회 좋은조례연구회(대표의원 노판식)는 6월 4일 오전9시부터 12시까지 의회대회회의실 2층에서 시의원 및 공무원 등 41명이 참석한 가운데 지방재정분야의 전문가(신해룡)를 초빙하여 강연을 듣고 결산심사기법 및 지방재정의 전반적인 사항 등에 대한 다양한 의견들을 교환했다.

연구회원은 노판식(대표의원), 정영주(총무), 노종래, 배여진, 강영희, 김이근, 조영명, 이민희, 이찬호, 이해련 의원 등 10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특히 6월 5일부터 열리는 제49회 제1차 정례회시 2014 회계연도 결산 안을 심사할 것이라는 점에서 많은 시의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전문가로부터 재정분야의 다양한 노하우를 습득하기 위해 열의가 대단히

뜨거웠다.

아울러 결산은 단순히 예산 집행결과를 보고받는 것이 아니라 세입세출에 대한 회계상 오류를 바로 잡고, 예산이 편성 목적대로 집행이 제대로 되었는지 검증하여 비효율적인 재정운영을 가려내고, 다음 연도 예산편성과 예산심의회 반영될 수 있는 과정이라고 결산의 의미를 강조함은 물론, 나아가 방대한 재정규모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예산에 대한 이해만큼 결산검사를 세밀하게 분석해야 건전재정을 도모할 수 있다고 밝혔다.

특강에 참석한 좋은조례연구회 노판식 대표의원은 “결산 심사시 직접 활용할 수 있는 여러 기법들을 바탕으로 창원시에서 집행된 예산에 대하여 보다 심도 있게 심사하여 내년도 예산편성에 적극 반영 되도록 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옥상에 녹지공원을 만들자

2015. 4. 15 창원시보 제115호 게재



조영명 의원

환경해양농림축산위원회부위원장

도시의 에너지는 외부에서 공급 받은 화석연료를 중심으로 만들어진다. 이러한 과정에서 나온 폐열과 폐에너지 등의 폐물질들은 도시를 상대적으로 덥게 만들고 이런 도시의 특징과 도시 인구의 증가가 맞물려 열섬현상이 발생하게 된다.

아마도 수십 년 내에 지구의 온도는 2°C 이상 상승할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전망하고 있다.

도심의 온난화 대책으로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여러 가지 장점을 가진 ‘옥상 녹화 사업’에 대해 이야기 하고자 한다.

옥상에 녹화를 하는 것은 도심지역의 부족한 녹지공간을 확보하기 위한 인공대지의 활용이라는 측면과 함께 도시환경에 자연적인 요소를 도입함으로써 생물이 서식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주며 도시미관을 증진시키고 여가공간을 확보해 주는 등 다양한 공익적 기능과 역할을 한다.

옥상에 조경을 하면서 얻을 수 있는 장점들이 있다.

첫째 도시의 온도를 낮춰주고 단열효과 및 에너지 절감효과가 있다. 옥상녹화를 한 건물은 실내온도를 여름철에는 4°C 가량

낮추고, 겨울철에는 1°C 가량 높게 유지할 수 있는 장점이 있어 냉·난방 에너지를 연간 16.6%까지 절감할 수 있다.

두 번째는 저렴한 비용으로 녹지 공간을 확보할 수 있다. 도시화가 진행되면서 녹지공간을 마련하는 것에 어려움이 있으며, 별도로 공원과 같은 것들을 만들기 위해서는 많은 예산이 필요하다. 하지만 옥상에 조경을 하게 될 경우에는 유휴공간을 이용하게 됨에 따라 비교적 저렴한 비용으로 녹지공간을 조성할 수 있다.

이 외에도 옥상녹화의 장점으로는 스모그 발생량 감소, 폭우가 쏟아질 때 일시정지 능력 등이 있다.

이러한 장점들 덕분에 최근 국내 여러 시에서 이러한 옥상조경에 관심을 가지고 지원을 늘리고 있는 추세다.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그리고 대전광역시의 경우 직접적인 재정지원인 보조금이나 사업비 일부를 지원하고 있고 울산광역시의 경우 나무나 꽃 등 조경 소재 일부를 지원하고 있다.

‘옥상 녹화사업’은 삭막한 도심에서 심리적 안정감을 갖게 할 뿐만 아니라 공기정화, 기후조절, 소음저감 등 물리적 환경을 개선하고 건축물 보호, 에너지절약 등의 경제적인 효과가 있기 때문에 창원시에서 적극 나서 줄 것을 제안한다.

세대간의 아름다운 콜라보레이션

2015. 4. 25 창원시보 제116호 게재

‘Up! Youth Life Skill!’은 ‘창원시봉림 청소년수련관’이 꿈꾸는 슬로건이다.

2014년 10월 개관 한 수련관은 청소년들의 생활역량 강화로 세계 으뜸 시민청소년으로의 성장을 진흥하는 요람 역할을 해왔다.

‘Youth Life Skill(청소년 생활 역량)’은 청소년이 주어진 환경에 잘 적응하고, 실생활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며, 자신과 타인 이해를 통한 상호 호혜적인 관계를 긍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하며, 개인의 감성과 사고, 행동을 변화시켜주는 힘이며 청소년이 가치 있고 행복한 삶을 영위하는데 반드시 필요한 역량이다.

봉림청소년수련관은 ‘큼온(溫)’ 즉, 따듯한 청소년으로의 성장지원을 위해 자아탐색 명상, 환경사랑 숲속놀이 체험, 뇌 개발 및 TRIZ 창의력개발, 100인의 멘토 진로탐색, 문화재탐방프로그램을 포함한 각종 문화·예술 체험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다.

또한 다양한 청소년의 다채로운 참여를 위해 청소년운영위원회, 동아리활동, 국제청소년성취포상제 활동을 운영·지원하고 있으며, 활력이 넘치는 지역사회 실현과 지역사회와의 나눔 실천을 위해 청소년들이 지역사회에 직접 봉사활동을 실천하고 이를 통해 성장 발전하도록 ‘이웃(이제는 웃으세요)’활동을 지원하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이웃사촌(이제는 웃어요, 사랑가득한 마을(村)안에서)’라는 주제로 우리지역에 있는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청소년들이 두 팔 걷고 나서고 있다.



이 희 철 의원
경제북지문화여성위원회

청소년들은 인근지역에 있는 전통재래시장인 봉곡시장 임원진들과 회의를 가졌으며, 상인들의 요구사항에 맞게 청소년들이 황금같은 주말 시간을 할애하여 봉곡시장 주변 정화활동을 시작하였고, 소상공인들의 가게 홍보를 돕기 위하여 기존의 박스에 쓰인 문구들을 ‘예쁜 글씨(POP)’로 센스 있게 교체해드리는 청소년 재능기부활동도 진행하고 있다.

다가오는 5월 30일에는 ‘골목형 시장’을 준비하고 있는 봉곡시장 활성화를 위해 청소년들이 직접 나서서 봉곡시장 홍보 안내방송, 댄스공연, 떡매치기, 제기차기, 윷놀이, 한복입기 체험, 어르신 안마해드리기, 핸드폰 사용법 도와드리기 등의 효도부스를 포함한 다채로운 축제의 장을 준비하고 있으며, 미디어 편집에 재능이 있는 청소년들이 봉곡시장 홍보 UCC를 제작하여 다양한 홍보채널을 통해서 홍보활동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전통시장 살리기는 서민경제 살리기와 맥락을 같이 한다. 더구나 한 세대의 노력만으로는 전통시장의 명맥을 이어나간다는 것은 아주 힘든 일이고 분명 한계가 있다. 그런 의미에서 기성세대와 다음세대가 함께 힘을 맞추어서 협력해 나가간다면 우리의 전통시장의 미래와 서민경제의 미래는 한층 더 밝아질 것이라고 생각한다.

우리아이들이 행복하려면

2015. 5. 25창원시보 제118호 게재



이 찬 호 의원
도시건설위원회

세상에서 정말 성공한 사람은 자신이 하고 싶었던 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다. 어떤 종류의 일이든 간에 보람을 느낄 수 있기 때문이다.

반면, 실패한 사람들은 불만과 슬픔이 가슴속에 짝 차있는 사람들이다. 소위 잘 나가는 사람들의 인생은 어디에 속할까. 답은 아무래도 실패한 쪽이다. 술한 세월 동안 불안과 긴장 속에서 오로지 출세만 바라보고 살아왔기 때문이다. 그들은 올라갈 수 있는 데까지 올라가서야 비로소 그것을 깨닫는다.

탁월했던 입학시험 성적이나 어려운 고시 패스를 뒷받침했던 출중한 두뇌는 그들의 인생을 행복하게 하는 데는 별 도움이 되지 못했다는 것이다.

이 시점에서 우리 기성세대는 ‘자녀들에게 무엇을 가르치고 어떻게 깨우쳐야 할지’를 곰곰이 생각해 봐야할 것 같다. 부모가 그들에게 꼭 해주어야 할 것은 꿈을 키울 수 있도록 돕는 것이다. 목표는 자기가 선택한 분야에서 보람을 갖고 일하게 만들어 줘야 하며, 부모가 이루지 못한 꿈을 자녀들에게 강요해서는 안 된다. 강요에 의한 교육은 세상을 부정적으로 바라보고, 미래에 대한 자신감을 잃게 한다.

‘성적’이라는 잣대로 한 줄로 세우는 교육에서 우리는 이미 수많은 경험을 했다. 그런 환경이라면 여유나 배려가 없고 인격이 성장하지 않는다. 저마다의 다양성을 존중하고 특기와 적성개발의 물꼬를 터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래야만 육체적 정신적 발달기에 자기 주도적 꿈을 개발하고 자아를 찾아 갈 수 있다.

지금의 아이들에게는 기성세대 삶의 틀이나 욕심을 강요하지 말고 오히려 그것을 벗어날 수 있게 도와주어야 한다. 닫힌 사고를 열어 사회구조를 재구성하는 창조적 심미안을 기를 수 있도록 말이다. 공부를 잘해서 얻게 되는 극소수의 사회적 우월감 보다는, 성실하게 사는 삶 속에서 수많은 새로운 가치들을 창조하고 성숙된 공동체를 재발견하도록 해야 한다.

학벌 중심의 가방끈 인플레는 우리 사회의 낭비와 계층 간 갈등의 원인이 되고 있다.

교육당국은 지금부터라도 ‘대학 즐기기’과 ‘기능인 양성’을 위해 나서야 한다. 그래야만 대학을 졸업하고도 직장을 구하지 못하고 결혼도 하지 않은 채 부모에 의존해 살아가는 ‘캥거루족’을 줄일 수 있고, 부모의 끝없는 간섭증후군과 재수·삼수생 양산을 막는 등 사회적 낭비를 줄일 수 있다.

총성 없는 전쟁 “관광산업”

2015. 6. 10 창원시보 제119호 게재



방 종 근 의원
도시건설위원회

지난달 말 900여명의 유커(遊客·중국인 관광객)들이 창원을 찾았다. 이들은 중국 상하이 현지 여행사를 통해 단체여행을 온 것으로, 이틀간 창원에 체류하면서 창원 의집, 창원역사민속관, 상남시장 대끼리 야시장 등을 두루 둘러보며 창원의 매력에 흠뻑 빠져들었다.

창원시가 관광산업을 새로운 미래 먹거리로 육성하기 위해 전력을 다하고 있는 이때 대규모 유커들의 방문은 매우 반가운 소식이었다.

지금 지구촌에서는 유커 유치를 위한 치열한 경쟁이 벌어지고 있다. 전 세계 관광산업에서 유커들이 차지하는 비중이 얼마나 컸으면 국가는 국가대로, 도시는 도시대로 모두가 그 경쟁에 뛰어들고 있다. 이를 두고 ‘총성 없는 전쟁’이라 표현해도 무방할 것 같다.

유커로 인해 현재 가장 많은 혜택을 받고 있는 곳이 바로 우리나라다. 지난해 600만 명이상이 우리나라를 찾았다. 전체 외국인 관광객의 40%를 유커들이 차지하고 있는 셈이다. 이들이 소비한 돈은 무려 14조원에 달한다고 한다. 유커 1000만 시대도 머지 않은 것 같다.

이제 창원시도 관광도시를 향한 큰 걸음을 내딛기 시작했다. 총성 없는 전쟁의 서막을 열고 있는 셈이다. 비록 늦은 감은 있지만 시작이 반이라 했으니 앞으로 펼쳐진 날들에 대한 기대가 크다.

창원시는 역사·문화적 자산과 자연생태 환경 등 관광산업 육성에 필요한 기본토대가

비교적 잘 갖추어져 있는 반면, 숙박 및 편의시설 등 관광산업의 인프라와 차별화된 관광상품의 개발 등에 있어서는 아직 부족한 부분이 많다.

이를 극복할 수 있는 길은 바로 창원이 갖고 있는 역사·문화·환경적 자산에 창원만의 고유한 스토리를 입혀 차별화된 관광상품을 개발하는 것이다. 그런 점에서 지난 달 창원을 찾은 유커들이 창원의 집에서 가진 전통혼례 시연 및 창원오광대 공연에 큰 관심을 보였다는 소식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천객만래(千客萬來)라는 말이 있다. 천명의 고객이 만 번을 온다는 뜻이다. 자영업자나 기업인 모두의 소망일 것이다. 그 경지에 오르기까지는 수많은 시행착오와 정말 고달픈 과정을 거쳤을 것이다. 반대로 만객일래(萬客一來)라는 말도 있다. 만 명의 고객이 한 번 온 후 다시는 찾지 않는다는 의미다. 바로 망하는 지름길인 셈이다.

총성 없는 전쟁의 서막을 연 창원시의 관광산업이 앞으로 가야할 길은 멀지만, 지금부터 한발 한발 착실히 추진해 나간다면 머지않아 천객만래(千客萬來)의 결실을 맺어 향후 100년을 이끌어갈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한다.

도덕적 인간과 비도덕적 정치

언론사 게재



이 상 인 의원
경제복지문화여성위원회위원장

사람들은 살면서 본의 아니게 거짓말을 하는 경우가 있다. 하지만 정치는 거짓말이 용인되지 않는다. 미국의 한 대학이 대통령학을 전공한 학자들에게 역대 대통령 중 가장 큰 잘못을 저지른 대통령을 뽑으라고 했다. 각종 스캔들에 연루된 열 명이 불명예를 안았다. 그 중에는 37대 대통령 리처드 닉슨도 들어 있었다. 닉슨이 범한 가장 큰 잘못은 거짓말이었다. 닉슨은 1972년 공화당 후보로 대통령 재선에 도전한다. 선거 와중에 비밀공작팀이 워싱턴의 워터게이트빌딩에 있는 민주당 전국위원회 본부에 침입해 도청장치를 설치하려다 발각되는 사건이 터진다. 닉슨은 처음에는 도청사건과 백악관의 관계를 극구 부인하지만, 곧 들통이 난다. 미국 국민을 분노하게 한 것은 도청 자체보다 그 사실을 은폐하려 했다는 데 있었다. 일본 작가 다치바나 다카시는 ‘다나카 가쿠에이 연구, 그 금맥과 인맥’이라는 책을 출간한다. 다나카 수상의 의혹은 ‘금맥’쪽에 집중됐다. 검은 정치자금의 비밀과 조성과정, 후원금을 낸 기업들이 누리는 혜택, 후원금 허위신고 내역 등이 폭로됐다. 하지만 문제는 다나카 총리의 대응방식이었다. 그는 의문들을 해명하려 했지만, 오히려 논란을 가중시킨다. 하나 둘씩 드러나는 거짓말, 그는 45일 만에 총리 자리를 내놓을 수밖에 없었다. 한편 ‘정의란 무엇인가’를 쓴 마이클 샌델 교수의 또 다른 저서 ‘왜 도덕인가’에서는 정치인이

지켜야 할 도덕적 가치에 대하여 상식의 틀을 깨는 몇 가지 숙제를 남긴다.

한 예로 빌 클린턴 대통령의 스캔들을 살펴보자. 그의 행위는 명백히 잘못된 일이며, 또 거짓말까지 한 것은 죄를 더욱 가중시킬 수 있다. 그러나 그가 케네스 스타 특별검사의 “모든 사실을 인정하느냐”라는 질문에 “부적절한 관계였다”라는 웅색한 변명에도 불구하고 상황을 모면할 수 있었던 것을 보면, 그러한 거짓말이 감추려고 하는 죄를 더 무겁게 하지는 않는 모양이다. 나아가 거짓말도 상황에 따라서는 정당화 되기도 한다. 예컨대 1964년 베트남 전쟁에 관하여 존슨은 대통령 선거운동에서 전쟁을 확대하려는 의도를 숨겼고, 루스벨트 대통령은 2차 세계대전에 참전하는 계획을 부인했다. 두 대통령 모두 국민을 속였지만, 당선이라는 개인의 부당한 목적을 위해서 거짓말을 한 존슨과 미국이 처한 시대적 상황에 불가피한 전쟁확대, 즉 정당한 목적을 위한 루스벨트의 거짓말의 도덕적 지위는 서로 달라질 수밖에 없다. 존슨의 거짓말이 루스벨트보다 상대적으로 정당성을 부여받지 못하는 이유는 도덕적으로 가치 없는 목적을 위해 행해졌기 때문이다. 막스 베버는 윤리적 기반을 잃은 정치는 국가와 공공의 이익에 해악을 끼치는 가장 무서운 적이라 말한다. 이제 정치는 현 사태 추이의 유흐리를 떠나 또다시 상처받은 도덕적 인간(국민)을 보듬는데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스스로 정치행위를 함에 있어 윤리적 책임 위에 균형적 판단과 진실을 우선해야 할 것이다. 그것만이 비도덕적 정치라 불리는 오명에서 벗어나는 길이다.

문화용광로에 불을 지펴라

언론사 게재

문화가 선진국의 척도가 된 지 오래이지만 흔히 우리나라 사람들은 문화를 즐기는 일에 대해서는 먹고살 만하니까, 혹은 시간이 남아 즐기는 일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크다. 영화 한 편, 책 한 권 읽을 시간조차 없는 우리나라 성인의 연평균 독서량은 유엔 조사기준으로 연간 0.8권에 그쳐 166위에 머물고 있다. 심지어 15세 이상 국민 가운데 1년에 책을 한 권도 안 읽는 사람이 10명 중 4명이 넘을 정도라고 하니 우리의 독서열은 낙제점에 가깝다. 이런 결과를 수치로 확인하고도 ‘인터넷을 검색하면 기본정보는 가지고 대화할 수 있는데’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의외로 많다. 필자는 지난 연말 미국에서 초연돼 신드롬을 일으킨 뮤지컬 ‘레베카’를 볼 기회가 있었다. 레베카는 1938년 대프니 듀모리에에 의해 탄생했으며 출간과 동시에 베스트셀러 반열에 오른 후 알프레드히치콕이 영화화해 공전의 히트를 친 동명의 영화를 모티브로 제작된 뮤지컬의 명작이다. 창원시의회 경제복지문화여성 위원장을 맡은 이후 전문지식 부재의 현실을 절감하고 열악한 지역문화 저변의 대안 마련을 위해 한 해 동안 기회 있을 때마다 공연장을 찾았다. 2013년 한국 초연 당시 원작자 미하엘 쿤체는 ‘한국 무대가 세계 최고다’라고 했을 만큼 배우 개개인의 역량은 출중했으며 관객의 전율을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했다. 하지만 현재 우리 무대에 오르는 대부분의 작품 원작이 유럽과 미국이라는 데 그 문제점이 있다. 그야말로 창의력의 부재라 아니할 수 없다. 영국에서 생산돼 뉴욕에서 꽃을 피운 뮤지컬은 미국인들의 창조성과 상업성, 문화마인드가 결합돼 찬란하게 피어났다. 뉴욕은 단순히 돈이 모이기 때문이 아니라 문화가 모이는 곳

이기에 지금처럼 경쟁력을 갖춘 도시로 성장한 것이다. 단순히 그림 몇 개를 사들이고 문화를 아는 기업인 체하며 홍보수단으로 활용하는 기업이 아니라 누구나 즐길 수 있는 문화를 만들어내고 그것을 자연스럽게 즐기는 사람들이 바로 문화인인 것이다.

나는 우리나라의 문화결핍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겉으로만 문화경영을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실속 있는 문화경영, 그리고 그런 문화를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근본적인 마인드를 고쳐 다양함을 포용하라고 말하고 싶다. 창의력의 부재가 순환되고 결국 중심에서 벗어나 주변부만 맴도는 어중간한 위치가 될 수밖에 없는 한국인들에게 유연한 방식으로 타 문화를 수용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현재로서는 개개인이 아무리 문화마인드를 갖춘다 해도 문화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희박해서 이런 풍토가 자리 잡을 때까지는 꽤 오랜 시간이 필요하겠지만, 변화하는 세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문화의 중요성을 깨닫고 이를 자연스럽게 습득해야 한다는 인식전환이 필요한 것이다. 문화 콘텐츠는 이제 현대사회를 이끌어가는 하나의 산업분야로 확고한 위치를 점하게 됐다. 이제 우리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체계적인 문화콘텐츠 개발과 시스템을 구축할 때가 아닌가 생각한다.

소통이 건강한 조직문화를 만든다

언론사 게재

모 일간지에 실렸던 분석기사가 흥미롭다. 2014년 발생한 두 개의 사건. 대한항공의 땅콩회항과 코오롱이 운영하는 경주 마우나리조트 붕괴사고를 보면서 위기를 대하는 조직의 대응능력과 리더의 판단력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생각해보게 됐다. 커뮤니케이션 전문가들은 공통적으로 위기발생 시 기업 최고경영자가 전면에서 나서서 진정성 있게 사과한 후 사건개요를 솔직하게 공개하는 것이 상황을 초기에 진화하는 가장 중요한 방법이라고 말한다. 반면 의혹을 부정하고 설명을 회피하며 조직 방어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을 가장 나쁜 예라 말한다. 대한항공이 이번 사태를 더욱 악화시킨 요인은 오너 경영체제 하에서 비롯된 경직된 조직문화와 폐쇄적인 소통문화에서 비롯된 것이라 할 수 있다. 조현아 전 부사장과 대한항공측은 사건이 벌어진 후 3일이 지난 시점에야 여론의 등에 떠밀려 원론적이고 표피적 형태, 무조건적인 오너일가 감싸기 형식의 입장표명을 한다. 이 발표문은 두고두고 위기관리 실패의 표본으로 남을 것이다. 한편 코오롱이 운영하는 마우나리조트 붕괴사고 시 자택에 머물던 이웅열 회장은 오후 9시15분 전화로 사고상황을 보고받고 1시간 만에 과천 본사에 도착해 현장으로 향했다. 그는 새벽 6시 현장에서 “깊이 사죄드린다. 코오롱이 할 수 있는 것은 다 하겠다”는 사과문을 발표한다. 사건 발생 9시간 만의 일이다. 이로써 코오롱에 대한 비난 여론은 시설물 점검의무 불이행 정도로 마무리된다. 위기상황에 대한 리더의 판단력은 위기관리 능력을 평가하는 기준이 된다.

얼마 전 미국과 쿠바가 국교 정상화를 맺음으로써 오랜 긴장관계를 완화시키고 새로운 미래를 열어가게 됐지만, 사실 냉전시대였던 지난 60년대, 핵전쟁의 공포에 휩싸이게 했던 쿠바 미사일 위기 상황에서 존 F 케네디가 보여준 위기관리 능력은 리더로서의 탁월한 판단력에 기초한 것이었다. 정부와 기업 그리고 사회조직 등 다양한 분야에서 조직의 능력은 위기에서 드러난다. 조직의 문화가 건강하면 위기상황에서도 그 조직은 건강하고 신속한 의사결정이 가능해지는 것이다. 메르스(MERS·중동호흡기증후군)가 온 나라를 공포로 몰아넣은 현재의 대한민국호의 모습을 보며 리더의 판단력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초기 대응 실패로 혼란은 가중되고 SNS를 통한 확인되지 않은 무분별한 정보는 사실로 굳어진다. 이러한 때에 리더십은 어디에도 보이지 않는다. 의료, 복지를 담당하는 주무장관은 사과는커녕 혼란을 방기하고 협력해야 할 야당과 대립각을 세운다.

많은 이들이 정부의 소통부재를 지적한다. 메르스 사태를 확대시킨 것에 대해 정부는 그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건강한 조직문화의 근간은 소통이다. 소통의 문화가 활발하면 소통의 리더십도 세워질 수 있다. 소통은 건강한 조직문화와 사회를 만들어 가는 수단인 것이다. 또한 소통은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명약이다. 위기의 순간에 더욱 차분하게 국민과의 소통에 힘쓰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 리더십의 출발점은 여기부터이다.

버스근로자 근무환경 개선 시급

언론사 게재



배 여 진 의원
경제복지문화여성위원회부위원장

지난 2일, 11분간 8.2km 노선 이탈한 진해 지선버스가 창원 월림사거리에서 일어난 인명사고가 연일 언론에 오르내리고 있다. 이 사고는 우연히나 단순 일회적인 게 아니다. 창원시는 2013년과 2014년 경남도 내 기초지자체별 시내버스 사고건수 1위임에도 특별한 대책과 조치를 취하지 않았기 때문에 예견된 일이었다.

사고 당시 해당 근로자가 당뇨로 말미암은 저혈당 쇼크 상태였기에 근로자의 근무환경에 발병원인이 있다. 재정지원을 하는 시와 관리자로서 책임 있는 업체는 근무환경으로 인해 생길 수 있는 질병에 대해서 사전예방 조치 등을 다해야 한다. 이 사전 예방조치에는 건강검진 수준으로 될 일이 아니다. 지난 12월 시의회 5분 자유발언 통해 조기출발 문제를 지적하면서 운행시간 현실화 통한 근무환경 개선을 주장했다. 그러나 시는 단속 위주의 대책을 내놔 문제해결의 실마리를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 운전직 근로자와 업주 사이의 갈등이 심화하고 있는 대방동 종점 식당 갈등도 시가 근로자들의 민원을 무시하고 있다. 시가 시내버스 근무환경과 관련한 문제들에서 미온적인 대처를 하는 사이 승객과 근로자 모두 위험한 도로위의 운행이 되고 있다. 이에 따라 세가지 정책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충분한 운행시간과 식사시간을 보장할 수 있는 노선개편, 운행시간 측정이 필요하다. 부족한 운행시간을 메우고자 조기출발하는 것은 단순 운행문제가 아니라 촉박한 시간으로 말미암은 육체적, 정신적 스트레스를 유발하는 것을 해결해야 한다. 둘째, 관리가

필요한 질환이 있는 근로자는 정기, 특별관리를 시와 업체가 해야 마땅하다. 한 예로 부족한 식사시간으로 인해 소화기관 장애나 불규칙한 식습관이 생기기 쉽다. 근무환경으로 말미암은 근로자들의 정신, 육체건강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가 이제 절실히 필요하다. 셋째, 낮은 안전교육 이수율을 높여야 한다. 안전교육 이수율을 높여 불시상황에서 근로자의 대처능력과 승객 안전 모두 두 토끼를 잡아야 한다. 창원시는 마음만 먹으면 전문적인 해법을 내놓을 수 있다. 교통공학 석사학위 보유 전문 공무원을 고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인구 108만 대도시 창원의 시내버스 운행체계는 대도시 지위에 부응하는 혁신이 절실하다. 시내버스 운행체계 혁신의 정당성은 충분히 확보됐으며 의지만 남았다. 4선 국회의원과 집권정당 대표까지 한 안상수 시장이 시내버스 정책에 적극성과 성공적인 모습을 보인다면 창원, 마산, 진해로 분열된 시민들의 통합하고 민행과 안전이란 두 토끼도 잡을 수 있을 것이다. 이제 시가 답할 때다.

지방행정체제 개편정책 실패와 창원광역시 승격

언론사 게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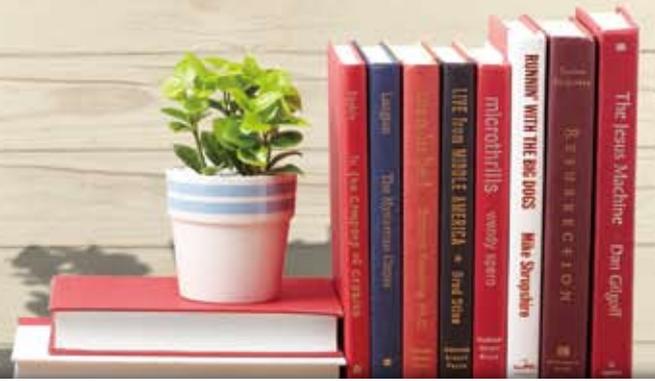


박 춘 덕 의원
도시건설위원회

2009년 광복절 경축사에서 이명박 대통령은 지방행정체제 개편안을 언급했다. 230개로 이루어진 현행 행정구역을 2014년까지 60~70개 수준으로 통합해 행정구역의 비효율성을 없앤다는 취지였다. 행정안전부 장관은 자율 통합하는 지차체는 사회간접자본 투자에 우선순위가 주어지고 국고 보조율이 10% 향상 된다고 했다. 통합직전에 시·군·구별로 50여억원의 특별교부세를 지원하고 지방 교육재정 교부금 추가 지원도 약속했다. 향후 10년간 통합 창원시에 재정인센티브 지원약속을 하며 전국 최초의 자율 통합이라는 미명아래 통합 창원시가 탄생했다. 창원, 진해, 마산이 통합하면 행정의 효율성은 증가되고, 중앙정부의 전폭적인 지지로 예산 운용이 늘고, 도시성장의 신동력으로 작용하며 지역의 균형발전과 지역의 화합을 통하여 동반성장할 것이라며 장미빛 환상으로 3개 시민을 선동했고 주민투표없는 통합을 반대하는 세력들은 통합인센티브라는 큰 그늘에 지워져버렸다. 일부지역은 공공요금인상 (상수도요금 1.2% 하수도요금 41.1% 쓰레기봉투값 27%)을 감수 해야 하고 세도시가 합쳐지며 없던 구청이 5개나 생겨났다 당시 3,800여명의 공무원수는 변함이 없었지만 공무원노조 창원시지부

가 발표한 설문조사는 82.9%의 공무원이 업무량이 늘었다고 답했고 시민들의 64.5%는 행정서비스의 제공이 힘들어졌다고 답했다.

당시 행안부가 통합의 명분으로 주장한 것은 주민생활편의와 행정효율성의 증대였다. 3개시통합으로 절감되는 행정비용이 10년간 2200억원에 달할거라고 했으나 실제로는 107억원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행안부가 2009년 작성한 “창원, 마산, 진해 통합 효과 분석결과” 공무원 규모조정(인건비, 운영비 61.5%)1358억원, 선거비용 및 운영감축(단체장, 지방의회 1.6%)36억 2천만, 사회단체 보조금감소(10.8%)238억 5000만원, 중복시설 감소(227.7%)502억 8000만원, 중복지역축제감소(3.2%)71억 2000만원등 10년동안 2206억으로 책정됐다. 하지만 실제로 통합이후 구조 조정된 공무원은 없다. 특별법이 공무원들의 통합반대여론을 무마하기위해 10년간 고용보장하고 인위적인 정원 감축등 불이익을 주지 않기로 약속했기 때문이다. 주민들은 불편함을 호소하고 행정은 중첩현상으로 더 비 효율적이 되었다. 결과적으로 중복지역축제 감소효과정도이다. 이기우 인하대학교 법학전문대학장은 먼저 도시통합을 실시한 독일과 스위스 사례에서 통합에 의한 효과는 실제로 밝혀진 것이 없다면서 독일은 행정구역을 개편한지 50년이 지났지만 당초 기대했던 행정효율성 증대나 행정서비스 비용감소는 나타나지 않았다고 했으며 그 원인을 소지역주의를 들었다. 통합창원시의 현주소는 지방행정



체제개편정책의 실패로 인한 극심한 내용에 휩싸여있다. 소지역주의에 매몰되어 한발 나아가기가 무척 힘들다 정책의 입안단계에서 실시까지 어느 하나수월한 것이 없다. 통합1기에서 보여준 극도의 지역이기주의는 통합2기에서도 마찬가지이다. 통합전 3개시에서 발의한 분리건의안만 4건이고 통합당위성을 묻는 주민투표건의안도 의회를 통과해 답변을 기다리는 중이다 안전행정부 장관도 통합창원시의 내용을 잘 알고 있으며, 통합이후의 대책에 대해서도 고심중이라는 답변이 국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중에 나왔다. 2011년부터 2020년까지 매년 정부로부터 146억원씩 지원되는 통합인센티브를 포함해도 창원시의 재정이 날로 심화되고 본청을 포함한 각 구청별 예산도 편성하기 벅찬 상황이다. 두말할 것도 없이 졸속통합이 원인이다. 다시 분리를 하던 통합인센티브의 수준과 기일연장이 필요한시점이다

통합2기를 맞이하여 우리창원시는 자구책으로 100만인구의 저력을 몰아 광역시 승격 주민청구를 준비하며 시민을 대상으로 빠른속도로 서명을 받고 있다. 기초권한으로는 광역수요 행정의 한계, 기초재정권으로 광역재정수요 대응불가, 정부의 지방분권방향과 의지의 불투명, 분리요구 등 지역간 갈등의 고질화, 기계산업등 전통주력산업 경쟁력정체 등을 이유로 광역시 추진을 모색하고 있다. 이는 3개시 통합과정에서 통합시너지 효과라고 홍보한 사안이고 이러한 모든 것이 허구임이 입증

됐다. 2014년 부로 교부세 2399억원과 소방재정보전금 889억원은 지원 종료되어 통합 자치단체의 재정운용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있다. 2014년까지 정부의 시, 군 통합 정책은 실패와 중단으로 통합창원시는 전국의 유일한 기형적 자치단체로 전락했으며 3개시를 분리하여 원상 회복하는 것이 정답이다. 광역승격시 지역별 자치권을 가지고 구청장 직선, 예산권, 인사권, 조직권을 따로 할 수 있는 것은 있으나 자치권으로 생겨나는 구의회의 신설, 각 구청별 행정조직 및 중첩현상, 자치구마다 지원시설 보유 또는 신설, 경남도 어업권역에서 광역시 어업권역의 축소등 부적합한 사안도 면밀히 검토되어야한다. 통합당시 꿈꾸던 일들이 물거품이 되어버린 것은 우리가 몸소 체험한 바 있다 통합창원시가 광역시 승격이 분리보다 어렵다는 것은 일일이 열거하지 않아도 잘 알 것이다. 진정 시민을 위한 것이라면 지방행정체제 개편정책의 실패를 물어 정부에 3개시를 분리하거나 기형적 자치단체를 광역시로 승격하여 올바른 지자체의 모델로 삼아야할 것이다. 창원시의 광역시 승격운동이 창원시의 이기주의로 비칠 수 있다. 경남의 각 시군의 합의와 동의 없이 이루어지는 광역시 주장은 국가적 측면에서 지방행정체제 개편이라는 활로를 터놓은 상태에서 주장하여야 한다. 통합창원시는 3개시 분리 정책과 광역시 승격의 두 마리 토끼를 몰아야 한 마리라도 성공할 것이다. 광역시승격만 요구하다 실패한다면 경남에서 우리 창원시민만 낙동강 오리알이 되기 때문이다.



창원시의회
<http://council.changwon.go.kr>